

| SRI-기획-2018-04 |

수원시 고매로 일대 다문화점포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

A Study for a Maintenance Direction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about
Foreign Comocial District Stores of Gome-ro in Suwon

김주석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주석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다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김진유 (경기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 2018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8년 06월 30일

발행 2018년 06월 30일

ISBN 979-11-89160-05-0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김주석. 2018. 「수원시 고매로 일대 다문화점포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

비매품

국문요약

본 연구는 수원역 근처 고매로 일대가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점포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되는 속에서 이러한 상황변화가 도시경관, 생활 및 심리적 안전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시관리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원시에 부담을 주는 지역이 아니라 수원시의 발전과 이미지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고매로 일대가 양질의 외국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가로로 형성·유도하기 위한 가능성과 정비방향을 확인, 수원시의 해외문화를 수용하는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쇠락해 가는 구도심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를 조사하고 지역내의 현황과 과제로 현장 통행량을 조사하고, 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가로이용현황 및 가로에 대한 인식, 가로변 점포영업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고매로 일대는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쓰레기문제, 주차문제, 내외국인간 교류와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가장 먼저 대두된 문제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 등에 대한 행정과 시민단체의 계몽·계도활동을 통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내외국인간 교류와 소통증진을 위해 '우분트 in 수원'과 같은 행사가 행해졌으나 이는 일시적 행사로,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교류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주차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에 의한 소통 및 안전문제와 상점의 영업행위에 따른 고객주차수요의 문제로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등의 설치가 유일한 대안으로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매로 가로환경을 보면, 외국어로 간판이 설치된 점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 및 유흥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업종들은 대부분 내국인보다는 외국인(특히, 중국인)관련 점포들로, 점차 외국인 식당을 중심으로 외국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는 최근 개업한 경우는 없고, 대부분 장기간 영업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료 증가 등이 없어 신규계약의 외국인(중국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며, 월세를 미루기도 한다.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월세를 미루지 않고, 신규계약을 통해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외국인 신규세입자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매로 이용자들 고매로는 북측은 출퇴근 동선을 포함 생활동선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남측 매산로 방향은 시외 방문이용객들의 주 접근동선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내국인들은 해당 가로의 점포 등을 이용하기 보다는 단순 통과,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점포이용은 주로 점심 및 저녁시간대에 높아진다. 가로변 점포들은 주로 외국인(중국인)들에 의해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면에서 내국인의 경우 무질서, 위생 등 환경 불량, 주차시설 부족 등이 주된 불만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중국인)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붉고 큰 간판 등 가로경관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이국적 풍경으로 지역성을 나타내고 외국인(중국인)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주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는 불법주차에 대한 대응하고, 가로점포의 고객주차를 수용하기 위해, 공영주차시설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도로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외국인(중국인)들의 특성에 비추어 가로변 벤치 등 휴식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상인들 특히, 외국인영업자들은 현재는 상인조직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인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인간 교류, 친목활동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해당 고매로 일대를 정비함에 있어 물리적으로는 가로환경을 외국풍으로 강화하고, 보행의 쾌적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간 생활·문화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간 교류 및 친목도 모를 바탕으로 조직적 활동전개 등 관계형성 지원을 위한 비 물리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도시관리 측면에서 고매로 일대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 과 지속적인 외국인 점포 조사·분석을 제언한다.

(※ 핵심주제어 5개 내외 필수 기입)

주제어: 외국인점포, 다문화, 도시관리, 특화가로, 내·외국인교류

차 례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체계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고찰	 9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의 의미와 기능	9
1. 외국인 밀집지역의 의미	9
2. 외국인 밀집지역의 기능	9
3. 외국인 밀집지역이 도시공간에 가지는 의미	10
제2절 타지역 다문화거리	13
제3절 선행연구 및 본연구의 위치	16
 제3장 고매로 일대 다문화 점포 영업현황 조사	 21
제1절 고매로 현황	21
1. 고매로의 형성	21
2. 외국인 집중에 따른 문제와 해결노력	22
3. 점포분포 현황 및 업종	33
제2절 고매로 가로 통과 보행인구 현황	39
1. 조사내용 및 방법	39
2. 조사결과	
 제4장 다문화 점포 및 고매로에 대한 인식	 47
제1절 고매로에 대한 보행자 인식	47
1. 조사내용 및 방법	47
2. 보행설문응답자 일반특성	47

3. 고매로 이용현황	50
4. 고매로 이용 만족도	53
제2절 고매로에 대한 영업자 인식	59
1. 설문응답자 특성	59
2. 고매로 이용 만족도	68
제3절 소결	75
제5장 결론	80
제1절 종합	80
제2절 정책적 제언	82
1. 고매로 일대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	82
2. 외국인 점포 조사·분석 정례화	83

표 차례

〈표 1-1〉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사업내용	4
〈표 2-1〉 타지역 다문화거리 비교 표	14
〈표 2-2〉 타지역 다문화거리 비교 표	17
〈표 3-1〉 고등동 초록마을대학 사업계획개요	26
〈표 3-2〉 고등동 초록마을대학 대상지 개요	27
〈표 3-3〉 고등동 주민센터 청소 실시 계획	30
〈표 3-4〉 한중수교25주년 기념행사 ‘우분트 in 수원’ 행사계획	31
〈표 3-5〉 지점1 통행량 계측결과	40
〈표 3-6〉 지점2 통행량 계측 결과	42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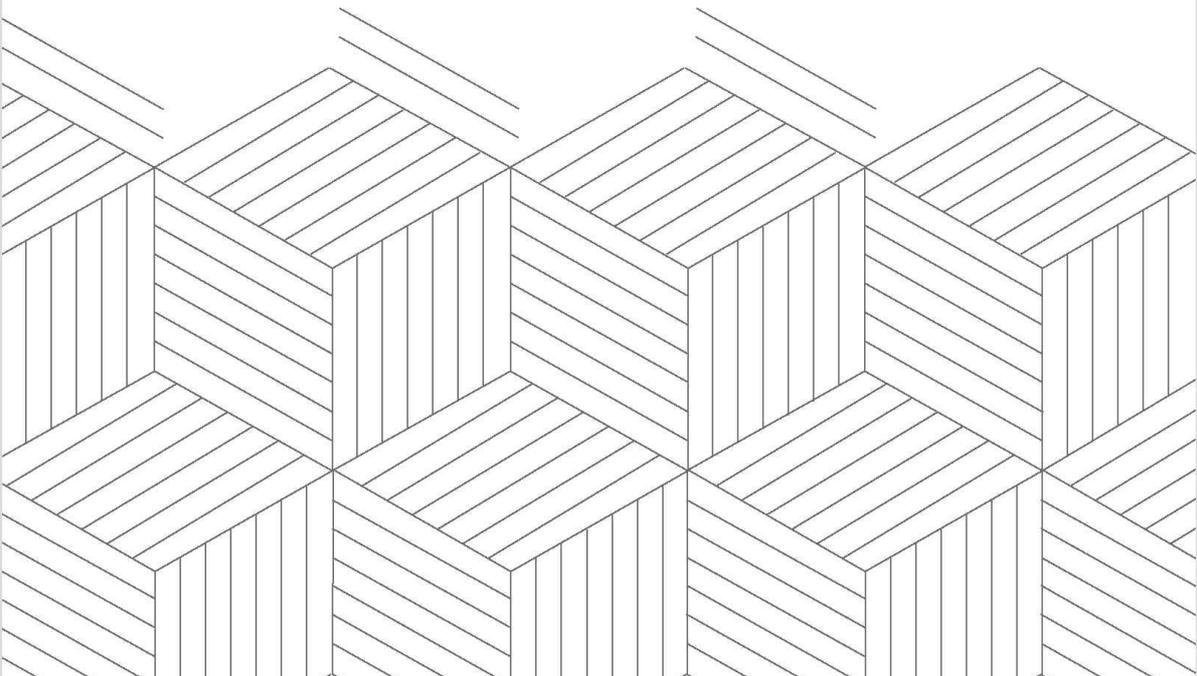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진행 체계도	5
〈그림 3-1〉 고매로 형성과정	21
〈그림 3-2〉 수원시 외국인 인구변화추이	22
〈그림 3-3〉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	23
〈그림 3-4〉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모습	24
〈그림 3-5〉 고매로 가로변 불법주차 실태	25
〈그림 3-6〉 고등동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 과정	28
〈그림 3-7〉 청소 등 활동 모습	29
〈그림 3-8〉 고매로 우분트 in 수원 행사 모습	31
〈그림 3-9〉 고매로 상점 업종 분포	33
〈그림 3-10〉 고매로 외국어 간판상점 분포 및 전체상점 종류	34
〈그림 3-8〉 고매로 가로 통과 인구 계측 지점	39
〈그림 3-9〉 고매로 북측 진출입 통행량	41
〈그림 3-10〉 셋길(고등로 연결로) 진출입 통행량	41
〈그림 3-11〉 고매로 남측 진출입 통행량	43
〈그림 3-12〉 셋길(매산로방향) 진출입 통행량	43
〈그림 3-13〉 고매로 통행량 경향	44
〈그림 4-1〉 설문응답자특성, 국적	47
〈그림 4-2〉 설문응답자특성, 국적	48
〈그림 4-3〉 설문응답자특성, 연령	48
〈그림 4-4〉 설문응답자특성, 직업	49
〈그림 4-5〉 설문응답자특성, 외국인 직업	49
〈그림 4-6〉 설문응답자특성, 거주지	50
〈그림 4-7〉 고매로 이용 이유	51
〈그림 4-8〉 고매로 이용 이유(국적별 비교)	51

〈그림 4-8〉 고매로 방문 빈도	52
〈그림 4-10〉 고매로 방문 시 교통수단	52
〈그림 4-11〉 현재 고매로에 대한 보행이용자 만족도	53
〈그림 4-12〉 현재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국적별 비교)	53
〈그림 4-13〉 고매로에 만족하는 이유	54
〈그림 4-14〉 고매로에 만족하는 이유(국적별 비교)	54
〈그림 4-15〉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55
〈그림 4-16〉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국적별 비교)	56
〈그림 4-17〉 고매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6
〈그림 4-18〉 고매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국적별 비교)	57
〈그림 4-19〉 설문응답자특성, 국적	59
〈그림 4-20〉 설문응답자특성, 성별	59
〈그림 4-21〉 설문응답자특성, 연령	60
〈그림 4-22〉 설문응답자특성, 업종	60
〈그림 4-23〉 사업장(점포) 소유형태	61
〈그림 4-24〉 사업장(점포) 소유형태	61
〈그림 4-25〉 외국인 종업원 유무	62
〈그림 4-26〉 영업주국적별 외국인 종업원 유무	62
〈그림 4-27〉 설문응답자특성, 거주지	62
〈그림 4-28〉 설문응답자특성, 영업기간	63
〈그림 4-29〉 설문응답자특성, 영업기간(국적별 특성)	63
〈그림 4-30〉 설문응답자특성, 영업상황(매출)	64
〈그림 4-31〉 설문응답자특성, 영업상황(매출)	64
〈그림 4-32〉 설문응답자특성, 사업장(점포) 방문객	65
〈그림 4-33〉 설문응답자특성, 사업장(점포) 방문객(국적별 비교)	65
〈그림 4-34〉 설문응답자특성, 지역상인 조직 등록 현황	66
〈그림 4-35〉 설문응답자특성, 지역상인 조직 등록 현황(국적별 비교)	66
〈그림 4-36〉 설문응답자특성, 지역상인 활동 회의 경험	67
〈그림 4-37〉 설문응답자특성, 지역상인 활동 회의 경험(국적별 비교)	67
〈그림 4-38〉 현재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	68
〈그림 4-39〉 현재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국적별 비교)	68

〈그림 4-40〉 고매로에 만족하는 이유	69
〈그림 4-41〉 고매로에 만족하는 이유	69
〈그림 4-42〉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70
〈그림 4-43〉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국적별 비교)	70
〈그림 4-44〉 고매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	71
〈그림 4-45〉 고매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국적별 비교)	72
〈그림 4-46〉 고매로 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역할	72
〈그림 4-47〉 고매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국적별 비교)	7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체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여 온 경험이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인종적·문화적 차별을 금지하고, 각 문화의 고유 양식을 보존하는 등 다양한 다문화 정책이 만들어져 왔다. 다문화주의 이론은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한 문화집단과 다른 문화집단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 왔다. 다문화정책은 어떤 한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 집단의 문화를 포용하거나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은 결국 문화적 포용성을 바탕으로 문화를 종속관계로 보고 희석시키거나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정 속에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조성하는 것을 통해 일상적 삶속에서의 문화적 경험을 높여 삶의 다양성과 질을 풍요롭게 하는 기능이 있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와 국제 결혼에 따라 형성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문화적 포용성 보다는 불안정한 저소득층¹⁾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다문화정책 또한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마련되고 있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한국의 대표적 다문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문화로의 편입 강요가 아닌 다문화 공존 정책,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방지 등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의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다문

1) 어떤 사회나 국가의 문화는 대부분 사회·경제적 상류층이 향유하는 문화인경우가 일반적이며, 자본에 의한 사회계층이 나뉘어 지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은 고급문화를 향유하거나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

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실행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영역은 가족과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자녀생활 서비스'등을 위한 방문교육사업이 진행되며, 결혼 이민자를 통역과 번역의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통번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1-1〉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사업내용

사업영역	내용
가족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프로그램 · 가족의사소통프로그램 ·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 결혼과 가족의 이해 · 가족의 의미와 역할 · 아버지교육 ·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프로그램 · 자녀교육프로그램 ·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 자녀생활지도 등
성평등	· 배우자부부교육 · 배우자이해프로그램 · 예비·배우자교육프로그램 ·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등
인권	· 다문화이해교육 ·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 이주민과 인권
사회통합	· 취업기초소양교육 · 구직자 발굴 및 구직처 연계 ·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 취업 관련 기관 연계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활동 · 한국사회적응교육 · 소비자·경제교육 · 학업지원반(검정고시반 등) 운영 및 연계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다문화인식개선 · 결혼이민자 멘토링프로그램 등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상담	· 가족상담 · 개인상담·집단상담 · 사례관리·심리검사 · 위기가족 긴급지원 · 외부상담기관 연계

자료: 다음백과, 2018.7 다문화정책

이러한 국가적 환경 속에서 수원시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접근도 중앙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수원역 동측 고등동 매산동 일대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행되지 못한 구도심의 노후 주거지역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 외국인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 중심의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당 지역 내 고매로 일대는 이미 중국풍의 대형의 붉은 간판이 늘어서 있고, 주변 일반 시민들에게 위험한 가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수원시의 중심부인 수원역 인근 교통의 요충지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외면되어 방치되는 지역으로 점차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한 수원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인 점포일색의 고매로 일대 가로

풍경을 폐쇄적이지 않은 양질화된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로로 형성하여 현재와 같은 저소득층의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반 수원시민들이 이용하고 나아가 양질의 외국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가로로 형성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원시의 또 하나의 문화(해외 문화를 수용하는)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노후 쇠락해 가는 구도심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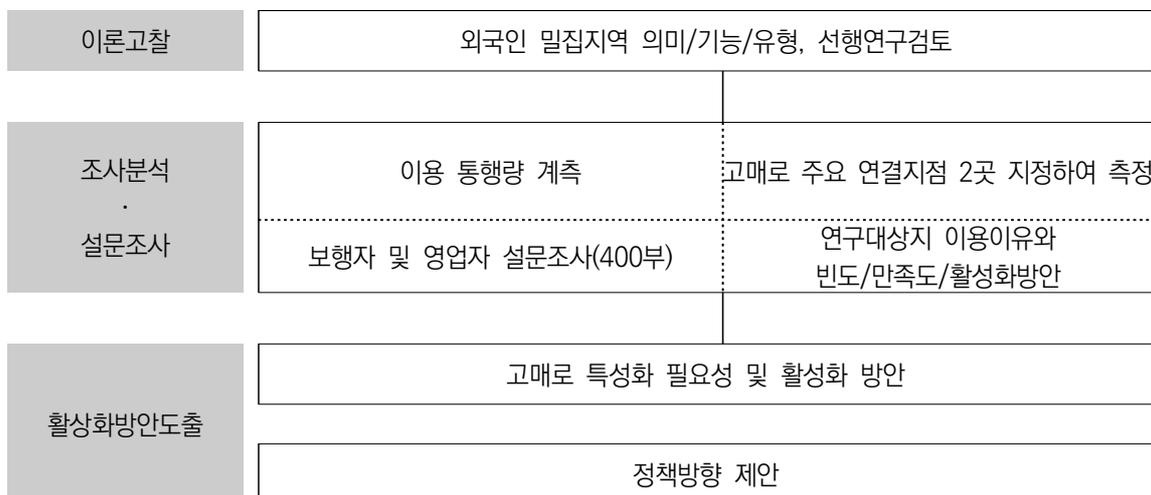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체계 및 방법

본 연구는 수원 구도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향후 정비방향에 대한 연구이다. 우선 문헌고찰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국내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실제 현황조사는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일대에 대해, 행정자료와 관할 행정 담당자 등의 인터뷰를 통해 개괄적인 특성 및 주요사항을 사전 조사하고, 대상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량과 통행동선을 계측하였다. 계측 대상은 고매로의 주요 진출입로 4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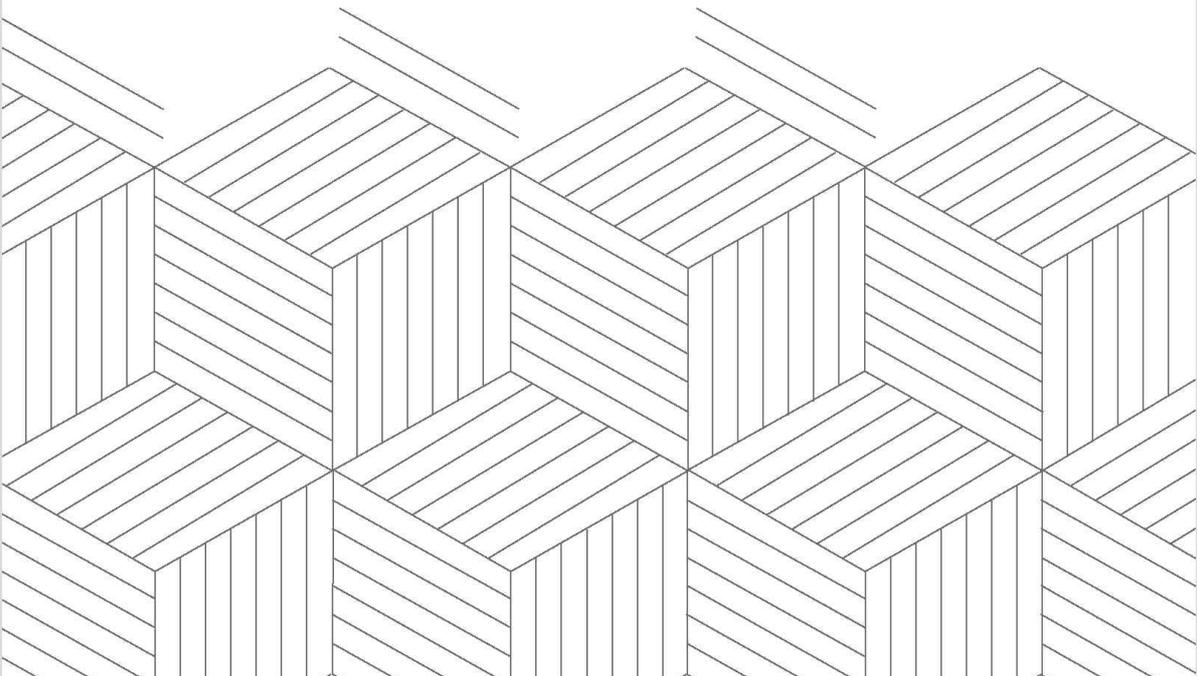
또한 보행자와 영업자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보행자는 고매로를 이용하는 이유와 빈도, 만족도,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하고, 영업자는 지역상인 조직 등록 활동여부와 사업장 현황, 만족도, 활성화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총 보행자는 400개의 샘플 수를 정하고, 영업자는 전수조사 하였다. 설문조사방식은 설문조사자가 대면방식으로 1주일 간 설문을 수집하도록 하였다.

<그림 1-1> 연구진행 체계도



제2장 이론적 고찰

-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의 의미와 기능
- 제2절 타지역 다문화거리
- 제3절 선행연구 및 본연구의 위치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외국인 밀집지역의 의미와 기능

1. 외국인 밀집지역의 의미

한국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전문 인력, 유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 유입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도시의 공간적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외국인들이 밀집하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집단 거주지나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상권이 밀집한 상업 지역 등 도시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적 공간이 발생한다(최세나, 2015).

외국인 밀집지역의 의미를 검토해보면, 외국인이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전된 공간, 즉 공간적으로 특정지역에 동일국가 출신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면서, 음식·상점가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곳(박세훈 외, 2009), 소수민족집단의 공간적 집적체와 관련 인프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보존되고 새로운 사회와 중재되어 상호 작용하는 그들 자신의 커뮤니티이다(전병규, 2011). 또한,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함으로써 공동체적 안정감을 가지고 일자리, 주거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곳(박세훈, 2010)이기도 하며, 외국인들의 집단 거주지나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상권이 밀집한 상업지역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적 공간(최세나, 2015)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외국인 밀집지역은,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상권이 밀집하여, 특정의 외국문화 혹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내/외, 외/외국인간 생활/문화관련 정보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 외국인 밀집지역의 기능

외국인 밀집지역은 이주민들에게 환경변화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대안적인 경제 구조를 부여하며, 문화적 전통 보존을 촉진하며(Abrahamson, 2005; Gold, 1992), 새로 정착한 사람들에게 이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시설과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새

로운 장소에 적응하고 조화할 기회를 부여(Kramer, 1970)한다.

또한, 내국인에게 외국의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관광명소화되어 자원화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될 수 있다.(김경민, 2012)

이렇듯, 외국인 밀집지역은 외국인에게는 국내문화에의 이해와 적응을, 내국인에게는 외국의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명소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치하는 경우,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저렴한 저수준 주거지에 밀집하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밀집, 확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방치와 배제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된다.

3. 외국인 밀집지역이 도시공간에 가지는 의미

외국인 밀집지역이 도시공간에 갖는 의미를 보면 크게 사회-공간 복합체, 문화정체성의 장소, 도시하위계층의 집적지, 관광·문화 상품공간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진다.

1) 사회-공간 복합체

오늘날 도시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용기가 아니라 기존의 사회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생산물(social production)’로 이해되고 있다(박세훈 외, 2009; 김경민, 2012). Lefebvre는 공간은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생산되며, 한편으로 공간 그 자체가 사회적 관계를 생산해낸다고 주장하였다. 즉, 새로운 공간이론을 통하여 공간의 소비와 활용, 공간의 의미화라는 정치적 행위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arvey, 1989; 김용창, 2000; 박세훈 외, 2009; 김경민,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은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힘들에 의해 구성되고 변형되며 재조직되는 살아있는 사회관계의 생산물이다. 동시에 그 내부의 공간적인 구성과 배치, 즉, 공간적 관계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존재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이렇듯 외국인 밀집지역을 그 공간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해나가는 사회-공간복합체(socio-spatial complex)로 파악된다(박세훈 외, 2009; 김경민, 2012).

2) 문화정체성의 장소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공간적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공간의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장소성’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지리학자와 인류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Relph 1985; Tuan 1977; 박세훈 외, 2010). 일반적으로 장소성은 인간이 체험을 통해 특정 장소에 느끼게 되는 애착으로, 고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일컫는다. 이를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 혹은 장소 의존성(place dependence)으로 다르게 부를 수도 있다. 모든 공동체는 특정 공간에 대한 자신들의 기억과 해석을 통해 고유한 정서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이주민 공동체에 있어서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장소성은 평상시에는 표면화되지 않지만, 그것이 도시 개발과 같은 인위적인 조정과정을 겪을 때에는 표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창호(2008)는 인천 차이나타운을 사례로 화교들의 공간에 대한 기억, 즉 장소성이 차이나타운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기억들과 경합하면서 갈등을 만들어내었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지리학자 Yeoh(1996)는 식민지 시기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사이의 공간에 대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갈등을 분석하였다.

Relph(1985)는 '장소가 하나의 장소로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물리적 환경, 인간의 행동 그리고 환경이 가지는 의미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Harvey(1989)는 정체성과 사회적 차별화가 서로 겹쳐지는 과잉축척의 위기를 공간적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장소 간 경쟁이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그 속에서 차이와 타자성이 공간속에서 생산됨을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이주민에 있어서 장소는 일반 주거지가 아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박세훈 외, 2009; 김경민,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민족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되고, 이러한 장소성은 장소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들 지역의 경우 최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관광자원화 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 밀집지역이 자원화 되지 못하고 일부는 불결하고 범죄와 폭력이 빈발하는 곳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김경민, 2012).

3) 도시 하위계층의 집적지

도시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내부공간은 새로운 인구집단이나 도시기능의 침입(invasion), 계승(succession), 분리(segregation)라는 생태학적 경쟁과정을 거치면서 공간적·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구역으로 분화된다. 이러한 분화는 외국인 주거지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거지는 선진 국가와의 국교수교로 인한 외국인 주거지와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주거지로 사회적·민족적 양극화(polarization)가 진행되었다(김경민, 2012).

사회적 양극화는 '도시하위계층(urban underclass)'라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계층민족의 공간적 분리는 사회문제로 불거지기 쉽다(박세훈 외, 2009). 주거환경이 낙후

된 외국인 주거지의 경우 외국인 자녀의 교육열 저하, 실업률 상승 등으로 슬럼화가 촉진된다. 이러한 경제적인 빈곤상황이 공간적 분리를 강화시키고 공간적 분리가 사회적 낙인이 되면서 다시 계층적 분리를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사회-공간적 악순환이 오늘날 미국과 같이 오랜 이민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경험하는 사회갈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박세훈 외, 2009; 김경민, 2012).

소수민족이 함께 모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회자본 이론으로 설명된다. 초기 이주민들은 수용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족집단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 내에 축적된 사회자본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경제적 현실과 사회문화적 차별 역시 이주민들로 하여금 집단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다. 한편 정책적 요인도 주거지 분리에 영향을 미친다. 초기에 이주민들이 정착하는 이주민 숙소가 있는 경우, 이주민들이 숙소에서 나온 이후에도 대체로 그 주변에 거주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규모의 공공 임대주택은 흔히 소수민족 집단의 근거지가 되기도 한다(Castles and Miller 2009; 박세훈 외 2009).

주거지 분리는 노동시장의 분절화(segmentation)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대체로 초기 수용국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초기에는 대개 동족인들을 상대로 하는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민족의 공간적 분리는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 쉽다. 빈곤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향적 사회이동을 하지 못하고 결국 소수민족 밀집 지역에서 에스닉 경제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즉 경제적인 빈곤 상황이 공간적 분리를 강화시키고 공간적 분리가 사회적 낙인이 되면서 다시 계층적 분리를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이다(박세훈 외 2009).

4) 관광 · 문화 상품 공간

현대 도시에서 공간은 삶의 터전이자 동시에 하나의 상품이다. 공간이 토지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는 공간이 지니는 고유한 성격, 즉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여겨지고 판매된다(박세훈 외 2009).

이는 도시연구에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화로 전통적 경관과 각기의 장소들이 본인의 문화정체성을 대변한다는 인식과 함께 상품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장소마케팅은 지리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지역의 이미지를 판매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Kearns & Philo, 1993; 김경민, 2012).

장소마케팅 전략은 지역주체들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수립하고, 긍정적 지역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한다(김정아, 2010).

현대 도시의 이러한 경향은 소수민족 밀집 지역도 상품화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문화적 타자성(cultural otherness)은 투어리즘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Picard and Wood 1997; 박세훈 외 2009). 에스닉시티(ethnicity)는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되고 판매된다. 국가는 상품화의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하면서 특정한 문화의 의미를 창조하거나 제거하고, 이주민 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거나 변형시킨다(Leong 1997; 박세훈 외 2009). 세계 여러 곳의 차이나타운이 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관광상품화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시드니의 차이나타운은 시 정부의 상품화 정책에 의해서 기존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포스트모더니티의 초현실적 산물'로 변형되었다고 지적된다(Mak 2003; 이창호 2008; 박세훈 외 2009). 한국의 소수민족 밀집 지역 역시 이러한 공간상품화의 경향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부인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비롯하여 여러 자치단체서 차이나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차이나타운의 발전 방향을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제시한 바 있다(전경련 2006; 박세훈 외 2009).

우리나라의 외국인 밀집지역은 이러한 공간상품화의 경향에 직면해 있다. 인천차이나타운 조성계획을 비롯하여 서울시에서도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렇듯 외국인 밀집지역은 도시공간에서 지역마케팅으로 문화 및 관광자원화 되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책의 대상이 되며(김경민, 2012), 국제무역의 통로로서 지역주민의 삶과 도시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Jan Lin, 2005; 박세훈 외, 2009; 김경민, 2012).

제2절 타지역 다문화거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안산 다문화거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리봉동 조선족거리, 이태원 관광특구, 자양동 양꼬치거리 등이 있다. 대부분 업종은 이동통신사, 식료잡화, 부동산, 택배, 부동산, 환전소, 여행사, 화장품, 유흥시설, 카페/다방, 식당, 병/의원, 종교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식점, 상가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로 외국인들의 생활공간, 관련 인프라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있으며, 조선족의 이용 빈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문화 거리에 대해 사람들은 이국적 느낌과 새로운 시청각·경험, 한국인이 많이 찾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 내·외

국민 문화이해 공간, 외국인 간 소통공간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퇴폐유흥이나 다소 위험한 느낌과 범죄, 비위생, 소음, 불친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국인 무리의 위화감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표 2-1〉 타지역 다문화거리 비교 표

명칭	업종 구성	특징	긍정적인식	부정적인식
안산 다문화 거리	식료잡화점, 슈퍼마켓, 식당, PC방, 이동통신업, 노래방, 사무공간, 주거공간, 미용실, 커피숍, 화장품, 여행사, 병원, 부동산, 은행 등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지역	외국인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음, 색다른 재미를 안겨줌 외국에 온듯한 느낌, 색다른 경험 넓고 깨끗한 느낌 말이 통하지 않을 땐 거리가 많이 지저분했지만 지금은 경찰들이 솔선수범 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니 다문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점 앞을 청소해 청결한 다문화 특구를 만들고 있음	성매매 거리로 변질 낯선 땅, 무서운느낌
대림동 차이나 타운	마트, 식당, 이동통신업, 사무공간, 주거공간, 미용실, 커피숍, 화장품, 환전소, 여행사, 부동산, 약국, 병원 등	조선족 이용 빈도가 다른 곳에 비해 높음	인공적으로 조성된 동네가 아닌, 중국인들이 와서 계속 발전한 동네여서 네이티브스러운 느낌이 난다.	시끄럽고, 위생적이지 못함. 밤 늦게 두려움을 느낌.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많음. 살인사건. 잦은 시비와 싸움
가리봉 동 조선족 거리	이동통신업, 편의점주거공간, 미용실, 커피숍, 화장품, 환전소, 여행사, 부동산, 약국, 병원, 직업소개소, 행정사 등	대로인 남부순환로 이면에 위치한 우마길을 따라 선형으로 조선족 관련 상점이 밀집되어 있다. 한국인 대상 상업시설의 비율이 낮고, 공간적으 로도 조선족 상업시설과 분리되어 있는 경향	흥미로운 볼거리	공격적인 문화가 조성되어 있음. 사소한 행동이 싸움으로 연결되는 일이 잦음
자양동 양꼬치 거리	마트, 식당, 이동통신업, PC방, 주거공간, 미용실, 커피숍, 화장품, 환전소, 여행사, 부동산, 약국, 병원 등	중국 유학생이 많음 조선족 중심 상업시설 가운데 한국인의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음식점이 거의 유일	음식점을 중심으로 상업가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한국인이 많이 찾음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음	중국인 상권이 형성되면서 중국인 관련 범죄가 발생. 이로 인해 심리적 불편 . 함이나 위화감을 느끼는 한국인

				주민들이 많았음
이태원 관광특 구 & 이슬람 거리	관광특구 - 의류 및 패션잡화시설, 식당, 카페, 유흥업소, 외국 식료품점, 관광호텔, 주거공간, 대사관, 종교시설, 편의시설, 환전소 이슬람거리 - 식당, 여행사, 서점, 이동통신업, 여행사, 편의점, 마트, 종교시설 등	음식점상가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 환의 중심지로 외국인들의 생활공간, 관련 인프라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	문화거리 등의 테마거리 - 개성적엔틱가구거리 및 세계음식 문화거리 등 각종 테마거리들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행사 및 축제들이 개성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개성적이고 이국적이며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낌	부정적이미지(게이, 트랜스젠더(바)) 외국인 범죄 모조품 불법시장
김해 동상동 외국인 거리 (종로 길)	이동통신업, 식당, 종교시설(교회, 이슬람사원), 마트, 화장품. 김해중앙상가(시장), 익스프레스, 구제웃	김해와 주변 도시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는 환경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고, 이국적인 풍경을 형성하고 있음	이주노동자들의 소통 공간, 침체되어 있던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음	상인들의 불친절,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국인의 범죄율 증가 , 외국인들의 출입이 많아지면서 국내소비자 감소 외국인에게 봉변당했다는 소문&살인사건 무리를 지어 다니는 모습은 내국인에게 위압감을 줌, 위생문제
종합	이동통신, 식료잡화, 부동산, 택배, 부동산, 환전, 여행, 화장품, PC방,미용실, 종교시설 카페, 식당/주점, 병/의원, 유흥업소		이국적느낌, 시청각/경험 한국인이 많이 찾음 한국인/외국인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 내/외국인 문화이해 공간 외국인간 소통공간	퇴폐유흥, 범죄, 비위생, 소음, 불친절,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국인 무리의 위화감

제3절 선행연구 및 본연구의 위치

다문화거리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장소기능’, ‘장소인식’, ‘장소형성’, ‘장소이용’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장소기능’에 관한 연구로 다문화거리가 내국인의 문화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인지, 또 다른 긴장공간인 고립공간을 만들어내는지에 주목한 심리적 안정공간으로서의 기능에 관한 연구(차철욱, 2013)가 있으며, 다문화적 도시구역 내의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존하며 상호작용을 전개하고 있는지 분석(송도영, 2011)하고,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전개되는 방식에 관한 연구(권온, 2011)가 있다.

‘장소인식’에 관한 연구로 한국인과의 격리 현상과 공간에 대한 소외 현상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내·외국인의 인식차이를 비교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사회·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함께 내재된 요소의 융합이 필요함을 밝히고(전병규, 2011), 외국인 밀집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주민의식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내국인 거주자의 인식조사를 통해 내국인 유형별 계획방향을 제시한 연구(김경민, 2012)가 있으며, 급격히 유입되는 외국인의 존재를 내국인이 어떻게 인식함과 동시에 주거환경의 만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박신영, 2009)하고, 다문화 공간의 장소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최재연, 2013)가 있다.

‘장소형성’에 관한 연구로 오늘날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이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박세훈, 2010)하고, 그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이석준 외, 2014)가 있으며,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행정동 별 거주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계획한 연구(김윤경, 2014)가 있다. 홍보영(2015)은 다문화공간인 서울 이태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 외식산업의 공간적 분포패턴 분석하였으며, 조재은(2017)과 최세나(2015)는 다문화 거리의 점포 변화 분석을 통해 가로 경관의 변화와 어떠한 경관 특성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공간을 어떻게 영역화하며(한정우, 2008), 지역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해나가는지를 분석한(박세훈, 2010)한 연구가 있다.

‘장소이용’에 관련한 연구를 보면, 강혜원(2013)은 김해시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로의 거리이용행태패턴을 분석하여 가로의 활성화 방법을 강구하였으며, 한대광(2007)은 지역관광개발이란 이론적 틀에서 인천 차이나타운의 지역 주민의 참여와 체험관광의 활성화, 지역축제의 다양화와 관광 특구와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의 지원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차이나타운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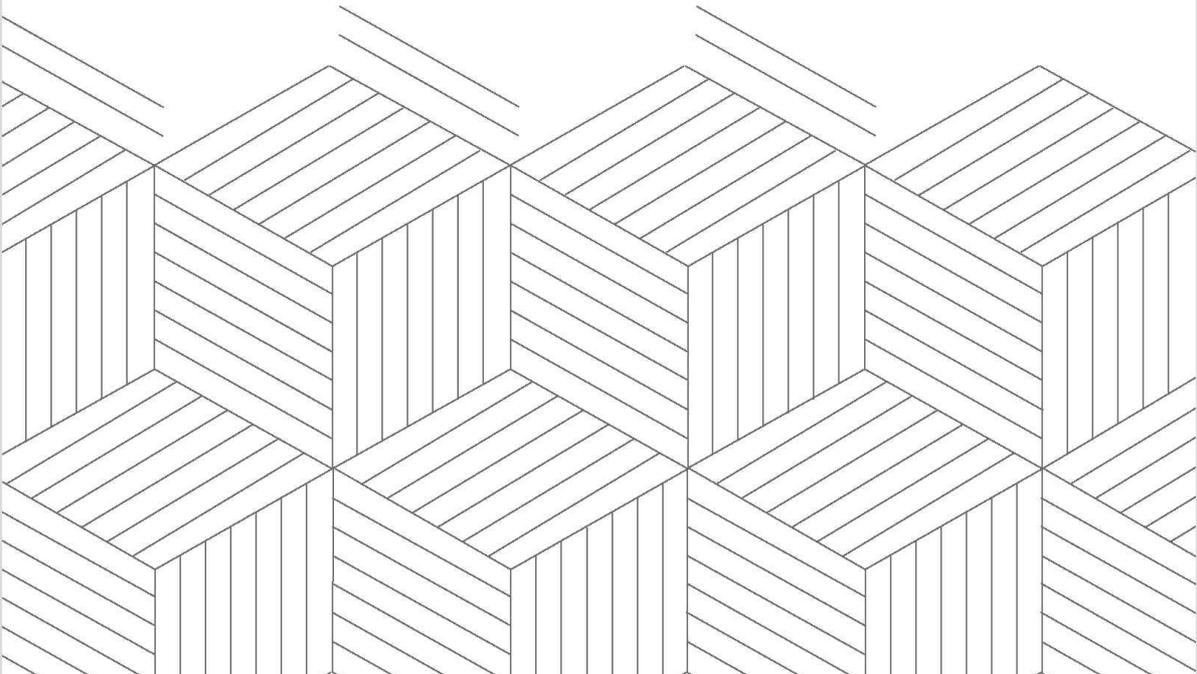
본 연구는 영역화 및 지역정체성 구축과 이용활성화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수원시 고매로의 사례특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표 2-2〉 타지역 다문화거리 비교 표

연구주제	연구내용	
장소기능	심리적 안정감	
	상호작용 및 갈등전개	
장소인식	내·외국인 인식	
	만족도, 이미지	
장소형성	공간특성 및 형성과정	
	가로경관분석	
	영역화 및 지역정체성 구축	본 연구의 위치
이용활성화(이국문화 이해, 향유)		
장소이용	이용행태	

제3장 고매로 일대 다문화 점포 영업현황 조사

제1절 고매로 현황
제2절 고매로 가로 통과 보행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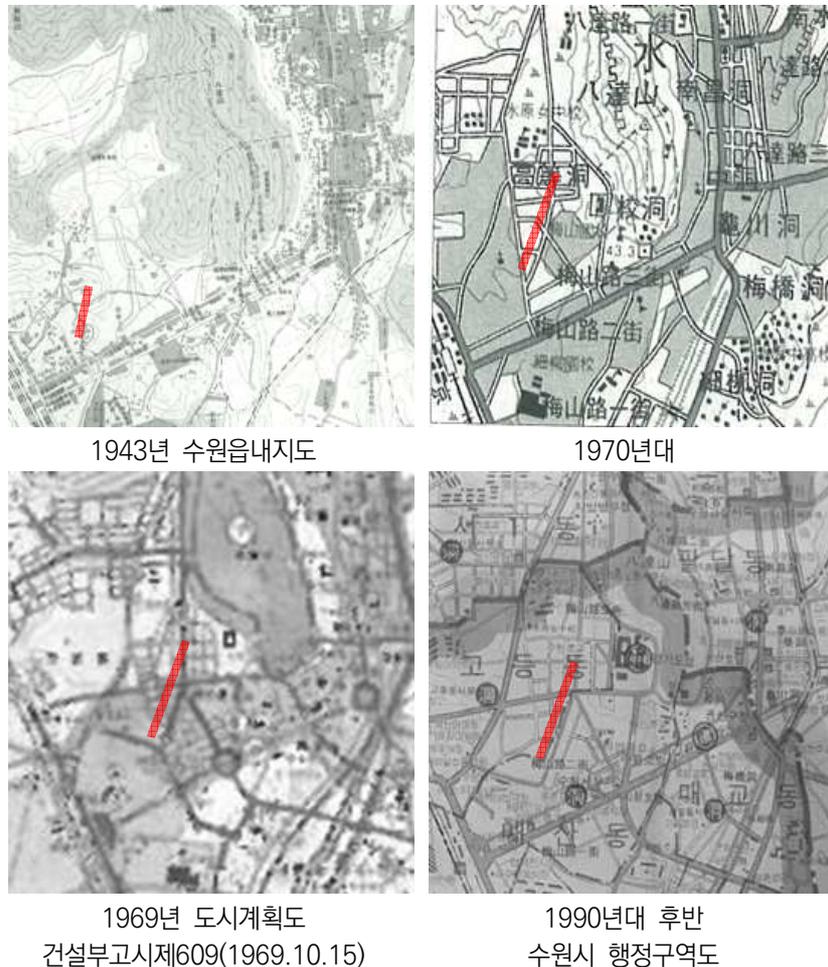


제1절 고매로 현황

1. 고매로의 형성

고매로가 포함된 고등동 일대를 보면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수원화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 수원역이 건설되면서 조선인의 주거지인 수원화성과 일본인의 주거지인 수원역을 연결하는 매산로가 건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매산로 주변에 시가지가 형성됨에 따라 고등동 일대의 농경지 일부가 취락입지로 변경되었으며, 이들 취락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새로이 건설되었다. 1943년 교통로로 고매로의 일부가 형성되었고, 1970년대 지도를 보면 고등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고화로와 연결하여 고등동 내부 교통로로 형성되었다.

〈그림 3-1〉 고매로 형성과정



자료: 유문종 외(2012) 수원시 고등동지, 수원박물관

다만 당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1969년 도시계획도에 보 면 현재와 같은 고매로가 계획되

었으며, 1990년대 후반을 거쳐 고등동 오거리에서 갯매산로로 연결하는 고매로가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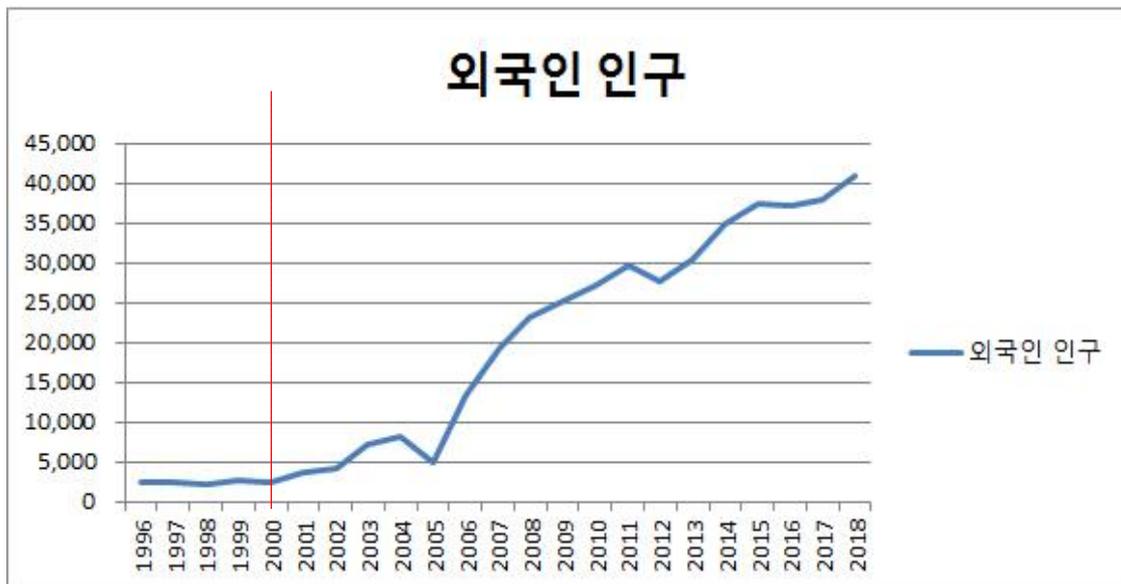
2. 외국인 집중에 따른 문제와 해결노력

1) 외국인 집중과 지역문제

수원시 고등동 일대는 경기도 남부권 도시(안산, 평택, 화성 등 외국인 노동자 등이 많다.)들의 교통 중심인 수원역과 가까워 도시 간 이동·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과거 수원역 및 수원버스터미널 배후지에 형성된 성매매집결지 등에 인접해 있어 소규모 주거들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에 의한 계획적 정비도 어렵고 자발적 정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들이 노후하고, 기반시설이 조악한 지역으로 저렴한 셋방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을 전후하여 외국인들의 거주가 고등동 일대에 급속도로 증가하였다.(아래 <그림3-2>참조,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허용이 2005년 3월까지였다.)

<그림 3-2> 수원시 외국인 인구변화추이



거주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수원역 부근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식료품, 잡화 등을 파는 가게가 많이 들어섰으며, 특히, 중국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들 중에서도 우리말을 유창하게 하는 중국 국적 조선족이 많다.

현장을 보면 주간에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보기 어려운데, 이는 인근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일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고등동에서는 잠만 자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동장 및 지역민 인터뷰, 2018.5) 고등동은 외국인들에게 일종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거주인구와 점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등동일대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내국인과 이주민간의 교류부재 및 방법에 대한 우려, 주차 난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었다.

(1) 쓰레기 무단투기

고등동에 사는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거주보다는 몇 년간 돈을 벌어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가 생겼다. 외국인들 대부분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 고등동 주민센터는 외국인 역시 우리 주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유문중 외 2012:170-171)

〈그림 3-3〉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1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2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3



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2018년 5월 현재 고등동장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 안산이나 화성 등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고등동에서는 잠만 자는 외국인들이 많아 낮 동안에는 외국인들을 보기 어려우며, 일종의 외국인 베드타운이다. 외국인은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몇 년 간 돈을 벌고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이기에 동네에 대한 애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등동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행정의 교육과 홍보로 비교적 개선되고 있다. 고등동에 외국인 자체 모임이 있었고, 자율방범대가 활동하였으나 최근 그 활동이 저조하다.

(2) 내국인과 이주민간 교류부재 및 방법에 대한 우려

초기에는 외국인이 많지 않았고,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여 언어 등의 면에서도 주변 주민과의 교류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특히, 고등반점 등 거주기간이 오래된 이주민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민활동에 적극 참여,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점포주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체의 자경단 등을 운영하기도 하였었다. 한편 2016년도부터 수원시와 서부경찰서가 주축이 되어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율방범대활동도 이루어졌다.

〈그림 3-4〉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모습



최근 새로운 이주민들의 증가와 외국인점포들의 확대에 따라 여타 가로와 다른 이미지의 외국인 점포 밀집가로에 대해 위협하게 느끼고 있는 일반시민이 많은 것으로 동행정 등에 인식되고 있다.

(3) 가로변 불법주차

고매로 및 인근상점, 도청 이용차량 등의 가로변 주차로 인해 항상 많은 차량들이 가로에 주차되어 있다.

“고등동 오거리에 공용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항상 꽉 차있다. 공공기관에서 5부제

10부제 운영하고 있지만, 몇몇 도청 근무자들이 5부제 10부제에 걸리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고, 불법주차 문제도 크다. 매일 하루에 2번 정도 와서 사진을 찍어가긴 하지만 불법주차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청도 내버려 두는 듯 하고, 견인을 하지 않고 딱지를 떼어도 분쟁이 생기니 사진만 찍는 것 같다. 계도를 하고 불법주차를 못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요즘은 중국인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차가 가능한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오래된 지역이라 주차 가능한 곳이 별로 없기도 하고, 거주자 주차구역도 불법 주차가 대부분이라 불만사항을 토로하기도 한다.”

- 지역내 00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인터뷰 中

〈그림 3-5〉 고매로 가로변 불법주차 실태



이러한 주차문제는 고매로 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동 및 매산동 지역 전체적으로 도로공간에 항상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지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서로들 적당히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1) 고등동 쓰레기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의 노력

① 초록마을대학

고등동의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는 단순히 가로경관 및 위생에 관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거주 및 영업행위가 많은 지역특성상, 내국인과 외국이주민 간의 갈등문제로 비화되었다.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쓰레기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습관도 차이가 있고, 특히, 분리수거 등 우리의 쓰레기 처리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특히 언어장벽에 의한 소통의 부재로 인해 사회 문화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지역의 쓰레기 문제 해결은 내·외국인간 상호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이주민 간의 쓰레기관련 공감대 형성 및 공동 목표설정, 그리고 그의 실천을

진행하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었다.

〈표 3-1〉 고등동 초록마을대학 사업계획개요

사업명	淸 淸 靑 高等洞. 더 맑게 더 밝게 더 푸르게	
추진기간	2014년 4월 ~ 2014년 10월	
사업비	지원 사업비 : 7,000,000	자부담 사업비 :
협력 기관 및 네트워크	고등동 마을 계획단	민관협력체제 구축
	수원서부경찰서 고등파출소	
	고등동 중국인 상인모임	사업을 위한 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
	고등동서로돌봄마을위원회	
	고등동 새마을부녀회	
	고등동 바르게살기지도위원회	
	고등동 성당 및 교회	지역 내 내외국민간 연결망 형성
	고등동 공인중개사 협회	
고등동 외국인 자율방범대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 ◦ 고등동 거주 외국인의 지역공동체 참여 ◦ 지역사업 자발적 참여를 위한 주민의식개선의 계기 마련 ◦ 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지역 공공기금 조성 ◦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를 통한 지역환경 개선 	
주요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과업시행 조직 구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단 ◦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분리수거 개선을 위한 주민교육 ◦ 외국인대상 설문조사 및 홍보물 제작 - 쓰레기 관리제도 준수여부 및 이해도, 문제인식 실태, 고등동 거주외국인으로서 애로사항 여부 및 원인. ◦ 거점 선정 후 주사업시행 통해 모범사례 지역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한바퀴 & mapping작업 - 지역 쓰레기 문제 실태조사 및 정리 - 지역 swot 분석-고등동 지역 제반문제(쓰레기문제 중심) 및 민관역량 	
대상 마을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은 행정동 면적의 약 60%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3년 사이 인구의 55%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해창 개발지구 주민들의 이주 후, 외국인 이주민, 교포들의 주거가 급격히 상승된 지역으로 외국인 주거 밀집 지역이 되었다. ◦ 마을의 쓰레기 불법투기의 문제로 내국인과 외국인주민간의 갈등이 일어나며, 소통의 부재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문제가 발생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마을의제 작성 및 환경과 쓰레기 투기방지 등의 주민과 이주민간의 공동의 목표설정과 실천을 통한 환경실천과 내외국민 협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 ◦ 쓰레기 관리 취약지역 시스템 개선 및 구축을 통한 환경 개선 ◦ 지역 환경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 ◦ 사업 참여를 통해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소속감 고취 ◦ 분리수거 개선 통한 쓰레기 자원화로 공공기금 조성 ◦ 환경활동을 통한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소통 및 교류를 통한 환경마을 지속발전 ◦ 초록마을 이후 다양한 내외국민간의 의제발굴과 환경중심의 마을공동체 발전 가능 	

자료 : 아시아문화연구원 내부자료

이에 평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에 힘써 온 아시아문화연구원(수원시 소재)이 경기도가 지원하는 진행하고 있는 초록마을 대학 프로그램을 활용,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쓰레기 감소와 지역환경 개선을 주제로 하는 고등동 거주 외국인의 지역공동체 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표 3-2〉 고등동 초록마을대학 대상지 개요

대상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해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단체의 활동 침체 내외국민간의 비용화 쓰레기 무단투기 심가 및 분리수거 소홀 주민의 지역개선 의지 활용처 미비, 향후 지역개선을 위한 주민역량 계발 기획 필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공동체 활성화 쓰레기 관리 취약지역 시스템 개선 및 구축을 통한 환경 개선 지역 환경에 대한 주민 의식 개선 사업 참여를 통해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소속감 고취 분리수거 개선 통한 쓰레기 자원화로 공공기금 조성 				
대상지역	행정구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가구 수	5,853세대 12,062명 (비공식 집계 거주 외국인 4,000여명)			
	마을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로 인해 지역 인구 감소로 마을내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환경 및 마을문제 해결 못함 주민 중 장기거주자가 많아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지역개선에 대한 관심이 큼. 거주외국인의 비율이 높으나, 독자적인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융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주거유형 (○표기)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학교
		○			
대상지역 지도					

자료 : 아시아문화연구원 내부자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단을 조직·구성하고, 해당 실천단이 중심이 되어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분리수거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쓰레기 관리제도 준수

여부 및 이해도, 그리고 쓰레기 관련 문제 인식 실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와 더불어 관련 제도 내용의 이해를 돕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한편 지역 주민 워크숍에서는 SWOT²⁾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였다. 특히, 고등동 지역의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 쓰레기 분리 문제에 있어 비협조적 상황에 대한 이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제반 문제와 원인 그리고 주민 및 행정의 역량 정도와 협력 정도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3-6〉 고등동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 과정



자료: 아시아문화연구원 내부자료

2) SWOT분석 :Strong(강점), Weak(약점), Oppotunity(기회), Threaten(위협)으로 구성된 분석 및 정리 설명 기법

초록마을 활동 과정을 통해 도출된 대응 방안은 주민들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주민들에 대해서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홍보물 등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실제 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청소하는 행사를 시작으로 청소를 정례화하고, 벽화 등 가로 환경개선 등을 실시하였다. 인식개선과 물리적 환경개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특히 사업과정에서는 가능한 수원시내에 먼서 선행하였던 지역의 주민들과 다문화 강좌 등 평소 친목을 다져온 외국인 주민들이 강사 및 지원가로 참여하여 함께 어울려, 이러한 활동이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나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주민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운용되었다.

② 고등동 주민센터 주최 청소활동 등 가로환경정비

고등동의 주민의 삶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책임지는 동행정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초록마을 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고등동 관내 특정 가로는 쓰레기 투기로 인해 거리가 매우 지저분하여, 쓰레기 관련 민원 등이 자주 제기되는 지역이 다수 있어 이들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센터 차원의 전방위적인 환경 정비를 추진하였다.

동행정은 민원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참여와 통장 및 관내 단체원등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홍보와 직접적인 청소행사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행사이후 지속적인 가로 관리 및 환경정비·감시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림 3-7〉 청소 등 활동 모습



자료: 고등동주민센터 내부자료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동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수행한 주요 활동내용을 보면 도로변에 발생하는 쓰레기와 낙엽수거 상태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전봇대 및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 집중 제거 등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상습 무단투기 구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적정 배출 홍보와 계도활동 등이 있다.

〈표 3-3〉 고등동 주민센터 청소 실시 계획

구분	내용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주요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접수 지역 집중 실시 - 도심 주요 도로변 각종 생활폐기물, 쓰레기 및 낙엽 수거 - 도로변 및 주택가에 걸린 불법현수막 제거 실시 								
장 소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table border="1" data-bbox="523 1469 1281 1619"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동선 및 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2조 ■ ■</td> <td style="text-align: center;">동선</td> <td>1조 : 고등동사거리 ⇒ 수원여고 ⇒ 병무청사거리 ⇒ 고등동오거리 2조 : 고등동사거리 ⇒ 수원역 ⇒ 그랜드사우나 ⇒ 고등동오거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참여</td> <td>고등동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6), 환경관리원(6) 등 단체원(20)</td> </tr> </tbody> </table>	구분		동선 및 인원	1·2조 ■ ■	동선	1조 : 고등동사거리 ⇒ 수원여고 ⇒ 병무청사거리 ⇒ 고등동오거리 2조 : 고등동사거리 ⇒ 수원역 ⇒ 그랜드사우나 ⇒ 고등동오거리	참여	고등동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6), 환경관리원(6) 등 단체원(20)
구분		동선 및 인원							
1·2조 ■ ■	동선	1조 : 고등동사거리 ⇒ 수원여고 ⇒ 병무청사거리 ⇒ 고등동오거리 2조 : 고등동사거리 ⇒ 수원역 ⇒ 그랜드사우나 ⇒ 고등동오거리							
	참여	고등동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6), 환경관리원(6) 등 단체원(20)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관련 민원 다수 지역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정비 추진 - 도심을 경유하는 도로변 등에 발생하는 쓰레기, 낙엽 수거 - 상습 무단투기 구역 집중 점검, 쓰레기 적정 배출(종량제 봉투사용 및 분리 배출) 홍보 및 계도 등 - 전봇대 및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 집중 제거 								
행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 단체원 등 많은 주민 참여토록 홍보 - 민원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 청소 참여 - 청소 후에도 지속 정비 실시 								

(2) 내·외국인 다문화 교류 노력

고매로 일대는 중국인 및 중국동포 등 다수가 거주 및 영업을 영위하는 지역으로 내·외국 인간의 소통과 화합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 실제, 2017년 10월에는 고매로에서 다문화의 일환으로 내외국인간의 문화교류와 이해, 소통의 행사를 이주여성협회 주관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는 이주민과 선주민³⁾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 서로의 공연문화를 나누고 다문화 인식개선 및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이에 대해 시에서 지원⁴⁾을 받아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우분트⁵⁾ in 수원’ 행사를 시행하였다.

- 일 시 : 2017. 10. 21(토) 11:00 ~ 17:00
- 장 소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일원(고매로 23~25)
- 주 최 : 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
- 참석대상 : 1,000여명(다문화가족 및 관련단체, 일반시민 등)
- 사업내용 : 선·이주민 전통춤공연, 한·중청년 문화교류 및 문화체험,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 등

〈그림 3-8〉 고매로 우분트 in 수원 행사 모습



〈표 3-4〉 한중수교25주년 기념행사 ‘우분트 in 수원’ 행사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한·중 전통의상, 전통놀이, 공예체험부스 운영	상설행사
13:00~13:30	-중국전통 사자춤 거리 퍼레이드 재현	식전공연
	-정조대왕 어린이 능행차 시범	
	-중국 허리북 행차 및 한국 난타공연	
13:30~14:00	-VIP 인사말씀 (등걸 총영사, 주기종 부영사, 왕루신 참사등)	
14:00~16:00	-선·이주민 전통춤 공연	본 공연
	-선·이주민 전통 악기공연	
	-한·중유학생 밴드공연	
16:00~17:00	완료 및 귀가	

자료: 아시아문화연구원 내부자료

3) 같은 주민인데 다만 선후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같은 주민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외국인 및 내국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주민과 선주민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4) 시보조금 1천만 원, 자부담 270만 원, 예산재정과 기관 공동 경비(민간행사사업보조), 여성정책과 다문화팀.

5) 우분트(UBUNTU)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임.

고매로에서 영업하는 내국인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서로 어울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서 문화 교류 공간이 전혀 없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공간도 좋지만, 교포들 사회에서도 지역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과 같이 교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필요하고, 단체의 대표들끼리 의견 교환도 하면서 자신들 지역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으면 한다.”

고 한다.

즉 지역에 문화교류가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의 직접적 활동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관계구축과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상적 생활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공공어린이집 등을 입지시켜 내외국인간 일상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문화에 대한 조기 상호이해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물리적 정비와 더불어 교류프로그램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외국인 활동의 공식화와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 외국공관과의 연계를 검토,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행사를 유치, 정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외국인 점포 가로변 주차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대상지 가로는 가로변 저층상가들이 늘어서 있는 지역으로 현재 가로변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 그어져 있어, 상업가로로서의 혼잡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가로변 건축물들은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별상업시설별로 각각의 주차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심저층밀집상업지역이다.

한편 도시계획적으로 해당가로는 수원역에서 대학로와 이어지는 보행중심의 가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가로를 이용하는 통과 차량동선 등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가로변 거주자 우선 주차 등 가로내에 주차를 유도하기 보다는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가로내 주차를 제거하는 것이 지역활성화 측면 및 가로경관,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해당지역의 가로변 토지이용 밀도 및 시설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평면주차보다는 현재의 주차장 및 공한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타워 등을 설치하여 단위면적당 주차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점포분포 현황 및 업종

1) 점포분포 현황

현재 고매로에 접한 모든 건물에 대한 용도의 분포현황을 보면, 가로 내에 물리적으로 확인되는 업종의 수⁶⁾는 약 135개이다.

〈그림 3-9〉 고매로 상점 업종 분포



주거시설에도 고시원과 같은 경우도 있으나 일상적 영업활동을 하는 점포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제외하는 경우, 고매로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점포수는 총 111개라 할 수 있다.

주거시설을 제외하고 업종별로 보면 식당의 비율이 34개(21.6%)로 가장 많은데, 대부분 1층을 점유하고 있다.

그 외에 유흥시설(주점, 노래방, PC방, 오락실)이 11개(10%), 커피숍/다방 8개, 생활용품점 6개, 이·미용실 5개, 식료품점 5개, 부동산 5개, 여행사 4개, 교육시설 3개, 사무공간 3개, 환전소 2개, 숙박시설 2개, 인력사무소 2개, 이동통신사 2개, 종교시설, 약국, 세탁소, 편의점 경로당 각 1개, 기타(행정사, 재건축위원회, 보석방, 찜질방, 비디오대여점, 카센터 등) 14개이다.

6) 영업활동은 하지만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은 되어있으나, 영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전화기만 놓고 실제 공간적 활동은 행해지지 않는 사업자 등록의 경우도 있어 실제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포를 직접 조사, 정리하였다.

한편, 고매로 내에 영업하는 점포 중 외국어 간판의 점포는 52개로 전체의 52.3%로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점포의 종류별 외국어 간판 비율을 보면, 여행사(4개/4개)와 환전소(2개/2개)는 100%가 외국어 간판을 달고 있으며, 식당은 82.3%(28개/34개)⁷⁾가, 식료품점은 80%(4개/5개),

〈그림 3-10〉 고매로 외국어 간판상점 분포 및 전체상점 종류



이·미용실은 60%(3개/5개), 유흥시설(주점, 노래방, PC방, 오락실)은 54.4%, 이동통신사 50%(1개/2개) 정도가 외국어 간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생활용품점(2개/6개), 커피숍(1개/8개), 기타(1개/14개, 행정사) 등이 있다. 이중 식당의 경우 간판이 한국어라도 한국식 정식 등의 메뉴를 운영하는 식당은 2군데에 그치고 있다.

외국으로의 이동 및 외국환 교환 등과 관계되는 점포는 모두 외국어 간판을 달고 있어 지역 외국인들에 특화된 점포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음식 및 유흥 등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업종들도 많은 부분이 외국인들과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간판이 한국어인 6개 식당 중, 한국식 메뉴를 운영하는 식당은 2군데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는 식당의 94.1%가 외국식당이라 할 수 있다.

2) 점포 소유와 영업 관계

(1) 영업주

고매로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인은 모두 중국인 및 중국동포들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업종 중 중국인이 영업주로 하는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 업종은 식당이며, 미용실⁸⁾, 부동산, 약국, 세탁소 등은 한국인들이 영업주로 운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인이 영업주로 운영하는 가게는 10년~20년 정도 오래된 2군데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현직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고매로 일대는 점차 중국인들의 영역이 커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들이 고매로에 상점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2) 건물 임대료⁹⁾

대부분의 건물주는 한국인이며 임차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인이다. 매산로 앞 상업지역과 가까운 곳은 10평 정도의 공간에 대한 권리금이 8000만 원 정도(고매로 남측 입구, 그랜드 사우나 주변)이며,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권리금이 높은 경우는 4~5억 정도의 시세를 보인다.

권리금이 다소 낮은(1000~2000만 원대) 장소에는 소매점, 행정사, 환전소, 이동통신사가 들어와 있으며, 임대료 시세는 한국 사람이 하는 곳은 10평 남짓한 공간이 월 50만원~100만원 정도이며, 중국인들이 하는 곳은 한국인이 하는 곳에 비해 보통 1.5배~2배 이상 올라가는데, 중국인들에게 비싸게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신규로 들어온 영업자가 아니라 이전부터 영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영업하던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면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기존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많이 올리진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법(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016.5 개정)적으로도 상가 임대료 상승분은 연 5% 이내로 정해져 있어,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5% 이내에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한번 계약 후, 임대료를 올리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에게는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대략 연 10% 정도를 상호 합의하에 올리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8) 미용실 중 1곳은 중국인이 영업주이며, 대부분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9) 2018년5월 기준, 현지 내 현직 부동산업자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내용으로 세금 등에 관한 기준금액 및 개별 점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해당지역의 임대료는 내국인 영업장이 외국인영업장 보다 저렴하지만 신규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를 거의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과 외국인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임대기간에 의한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과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임대료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매로의 부동산업자¹⁰⁾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증개로 지불이 아까워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재개발구역 주변이 활성화 되다 보니 우측편으로 중국식당이 많은데 계약한 가게가 재개발 장소인지 아닌지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이후, 재개발 구역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려고 해도 권리금은 이미 많이 지불했고, 다시 받고자 하니 부동산에서는 재개발구역이라 그 금액은 받지 못한다고 해도 손님만 보내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한다. 이는 결국 자기들끼리도 속이겠다는 얘기이며,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즉, 임대차관계에 있어서의 중국인의 불만사항은 제도적 문제에 의해서나 내/외국인 간의 차별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전 임차인 등의 또 다른 중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들의 음식문화가 기름지고 우리랑 다르다 보니 기름들을 마구 버려 하수구가 막히는 일도 많고, 깨끗하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국인보다 중국인에게 세를 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 중국인 90% 이상이 월세를 꼬박꼬박 지불하기 때문이다.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잘 내는 사람이 좋은 것이다. 한국인들 중 일부는 월세를 한 두 달 미루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지저분하게 쓰더라도 중국인들이 월세 지불을 꼬박꼬박 잘 하기 때문에 더욱 중국인을 선호한다.”

즉, 오히려 건물주들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것은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월세를 정시에 내는 상황에 대한 선호일 뿐이다. 즉,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한다.

3) 고매로 점포 영업현황 종합

고매로 내에는 외국어로 간판이 설치된 점포가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 및 유희 등 생활서비스와 관련된 업종들도 많은 부분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과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국문화와 관련된 점포들이며, 점차 중국인들의 점유가 확대되고

10) 00공인중개사, 고매로 가로변 소재, 2018.7.

있다.

임대차와 관련된 내·외국인 간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나 계약 갱신과 신규 계약 간의 임대료 상승의 차이 등에 따라 현황적으로는 이전부터 장기간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내국인의 임대료가 주변 중국인에 의한 영업점포 보다 저렴한 편이다. 다만, 건물주들은 신규 세입자의 경우 내국인보다는 월세를 미루지 않는 외국인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2절 고매로 가로 통과 보행인구 현황

1. 조사내용 및 방법

고매로를 이용하는 보행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보행통행량¹¹⁾을 계측하였다.

먼저, 담당행정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통과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하고 3일간 개괄적인 예비조사를 통해 고매로의 주요 보행이동로와 계측 적정위치, 적정일시 등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는 4월의 평일(화요일)과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하였다. 출근인구에 의한 보행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인 토요일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8시부터 오전 10시를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였다.

조사지점은 아래그림과 같이 고매로의 남북 진출입로와 주요 연결골목을 확인할 수 있는 2곳을 지정하여 양방향 통행량을 측정하였다.

지점1은 북측의 고등로와 이어지는 연결지점이며, 지점2는 매산로에서 연결되는 갯매산로 56번길 및 고화로13번길의 접점에서 고매로로 이어지는 연결지점이다.

〈그림 3-8〉 고매로 가로 통과 인구 계측 지점



11) 본 연구는 도심지 상업공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으로 가로변 점포 이용의 개연성이 높은 보행 이용자에 대한 것으로 해당 가로를 단순 통과도로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의한 통과 교통은 계측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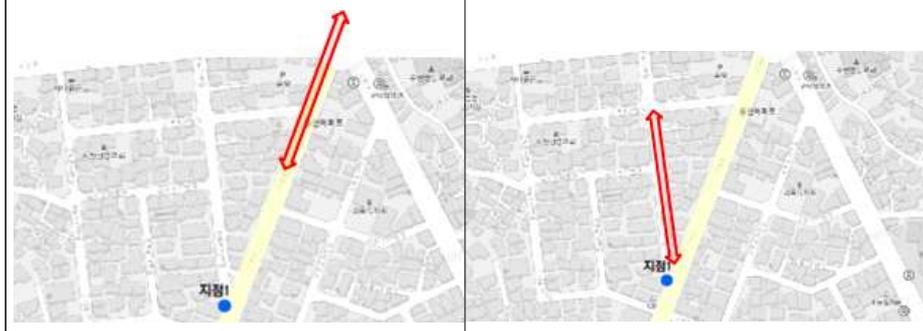
2. 조사결과

본 조사는 연구비용 등의 한계로 개략적인 통행 경향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통행 경향도 전체적인 맥락의 유추정도로 한계를 갖는다. 조사지점1에서 계측된 통행량은 다음과 같다.

〈표 3-5〉 지점1 통행량 계측결과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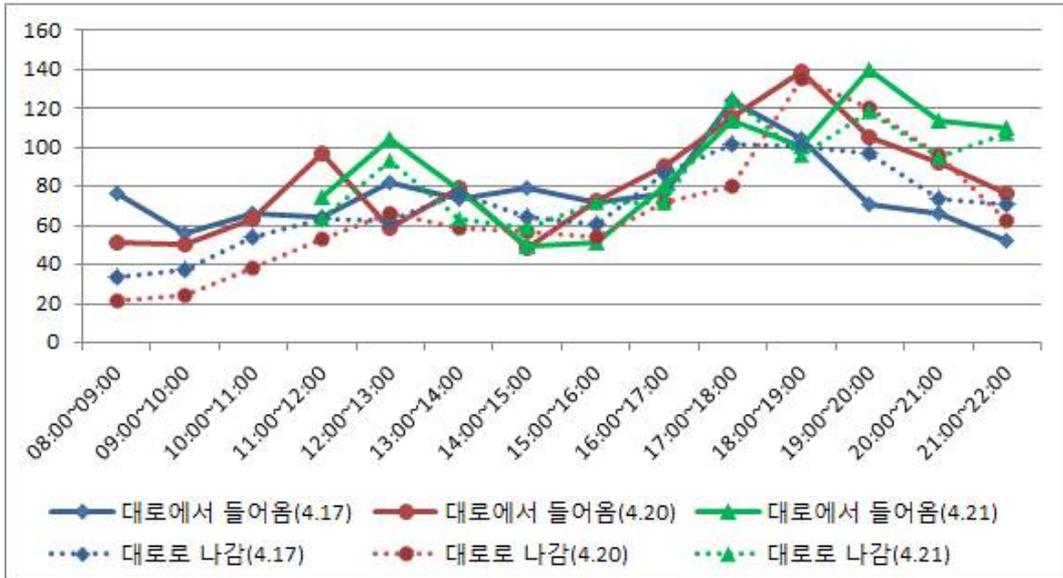
시간	고매로(북측)로 들어옴			고매로(북측)로 나감			셋길(골목길)에서 나옴			셋길(골목길)로 들어감		
	4/17 (화)	4/20 (금)	4/21 (토)	4/17 (화)	4/20 (금)	4/21 (토)	4/17 (화)	4/20 (금)	4/21 (토)	4/17 (화)	4/20 (금)	4/21 (토)
08:00~09:00	76	51	-	34	21	-	82	66	-	23	18	-
09:00~10:00	56	50	-	37	24	-	57	56	-	20	33	-
10:00~11:00	66	63	-	54	38	-	64	47	-	46	42	-
11:00~12:00	64	97	75	63	53	63	50	47	64	36	43	41
12:00~13:00	82	59	104	62	66	93	70	47	87	56	57	64
13:00~14:00	74	79	78	76	59	63	53	55	63	46	47	40
14:00~15:00	79	48	49	64	57	59	35	33	85	50	39	54
15:00~16:00	72	73	51	61	54	72	53	64	77	58	46	52
16:00~17:00	76	90	80	87	72	72	64	43	87	79	67	86
17:00~18:00	124	116	114	102	80	125	86	84	97	91	59	76
18:00~19:00	104	139	101	101	135	96	75	80	106	114	87	94
19:00~20:00	71	105	140	97	120	118	80	14	94	96	90	85
20:00~21:00	66	92	114	74	96	95	35	123	94	62	82	85
21:00~22:00	52	76	110	71	62	107	24	48	80	59	87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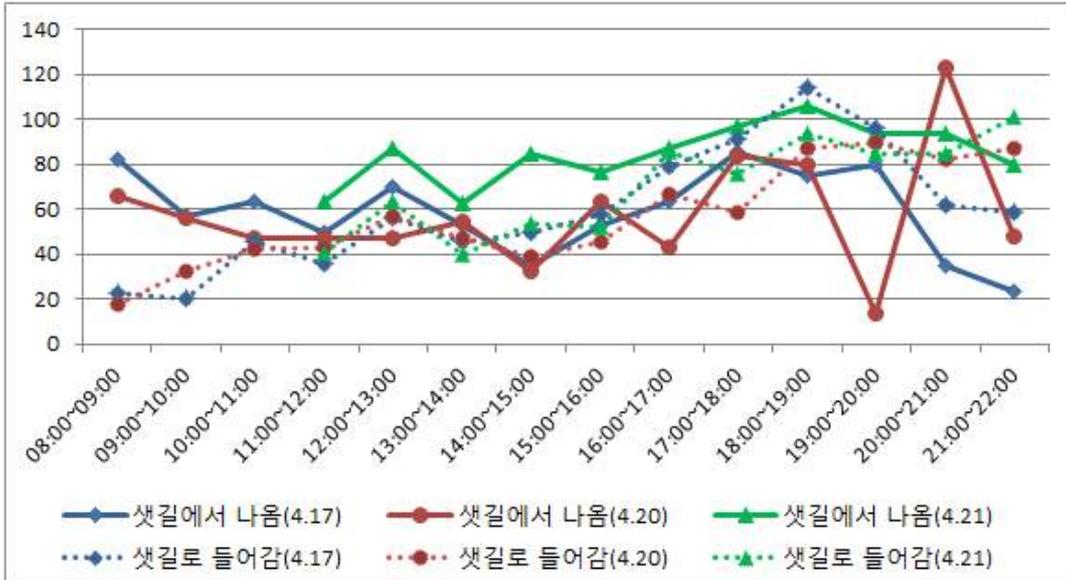
평일에는 12시를 전후하여 증가하였다가 감소하고 다시 17시부터 통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20시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점심시간대와 저녁시간

대로 주로 식사를 위해 음식점을 이용하는 인원으로 보인다. 출근시간에는 화요일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림 3-9〉 고매로 북측 진출입 통행량



〈그림 3-10〉 셋길(고등로 연결로) 진출입 통행량



평일(화요일, 금요일) 출근시간(08시)부터 점심시간(12시)까지는 고매로 북단에서 들어오는 인원(화요일 76명, 금요일 51명)과, 셋길(고등로 연결로)에서 나오는 인원(화요일 82명, 금요일 66명)이 대로로 나가는 인원(화요일 34명, 금요일 21명)과, 셋길(고등로 연결로)로 들어가는 인원(화요일 23명, 금요일 18명)보다 많다. 이후 17시까지 거의 비슷한 진출입통행량을 보이다가 17시 이후에는 통행량이 역전된다.

즉, 오전 시간대는 고매로 북단에서 고매로로 진입하는 통행량이 많으며, 저녁시간대 이후로는 고매로 북단으로 빠져나가는 통행량이 많다. 고등로로 연결하는 샛길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결과적으로 평일에는 오전시간대에 고매로의 북측에서 진입하는 인원이 북측으로 나가는 인원보다 많다. 주말에는 고매로를 따라 북측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더 많으며, 특히 샛길의 경우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점2의 통행량 계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 지점2 통행량 계측 결과

(단위 : 명)

시간	고매로(남측)로 들어옴			고매로(남측)로 나감			샛길(골목길)에서 나옴			샛길(골목길)로 들어감		
	4/17 (화)	4/20 (금)	4/21 (토)	4/17 (화)	4/20 (금)	4/21 (토)	4/17 (화)	4/20 (금)	4/21 (토)	4/17 (화)	4/20 (금)	4/21 (토)
08:00~09:00	40	24		126	108		20	34		5	15	
09:00~10:00	89	59		161	116		39	25		30	9	
10:00~11:00	115	75		160	109		19	26		9	14	
11:00~12:00	143	67	189	143	154	189	45	48	73	15	23	39
12:00~13:00	181	177	196	202	136	235	54	58	59	35	29	35
13:00~14:00	126	91	177	151	163	217	32	27	73	18	9	32
14:00~15:00	143	117	210	154	79	225	6	7	67	18	6	32
15:00~16:00	157	120	252	147	122	191	30	12	42	20	11	52
16:00~17:00	197	169	276	154	167	235	30	65	70	28	41	47
17:00~18:00	211	242	311	193	222	296	30	83	92	28	78	54
18:00~19:00	233	291	440	207	238	206	42	85	97	33	57	51
19:00~20:00	309	217	386	206	210	650	68	56	100	58	39	87
20:00~21:00	258	310	436	162	223	385	76	59	83	41	42	49
21:00~22:00	186	244	437	116	198	338	31	72	95	42	42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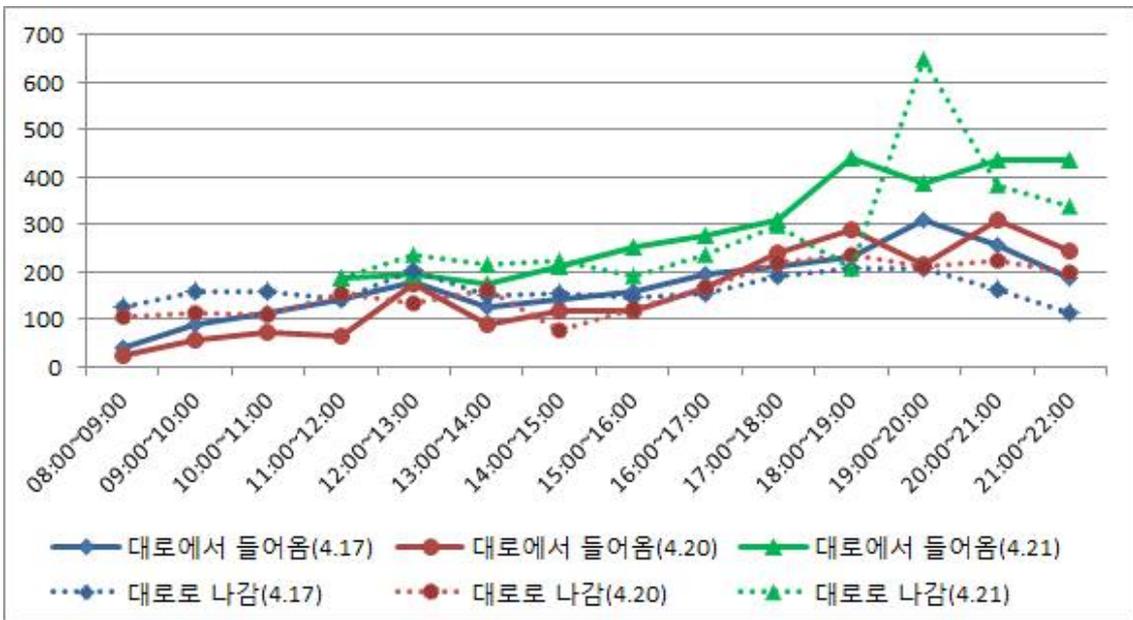


고매로 남측 진출입 통행량은 평일 주말 공히 시간대별로 지속적인 증가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셋길의 경우는 그 증감이 평일과 주말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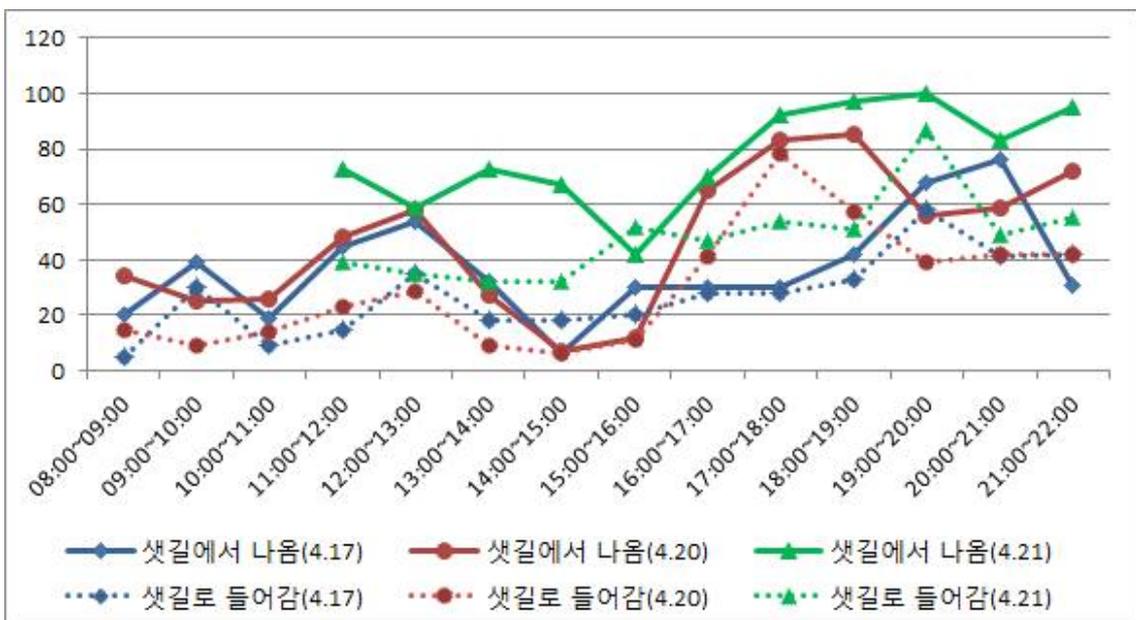
평일(화요일, 금요일) 출근시간대(8:00~10:00)에 고매로 남측으로 나가는 인원이 월등하게 많다. 이는 출근을 위한 통과인원으로 파악된다.

한편, 저녁시간대에는 주말 19시~20시 구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고매로 남측으로 진입하는 인원이 나가는 인원보다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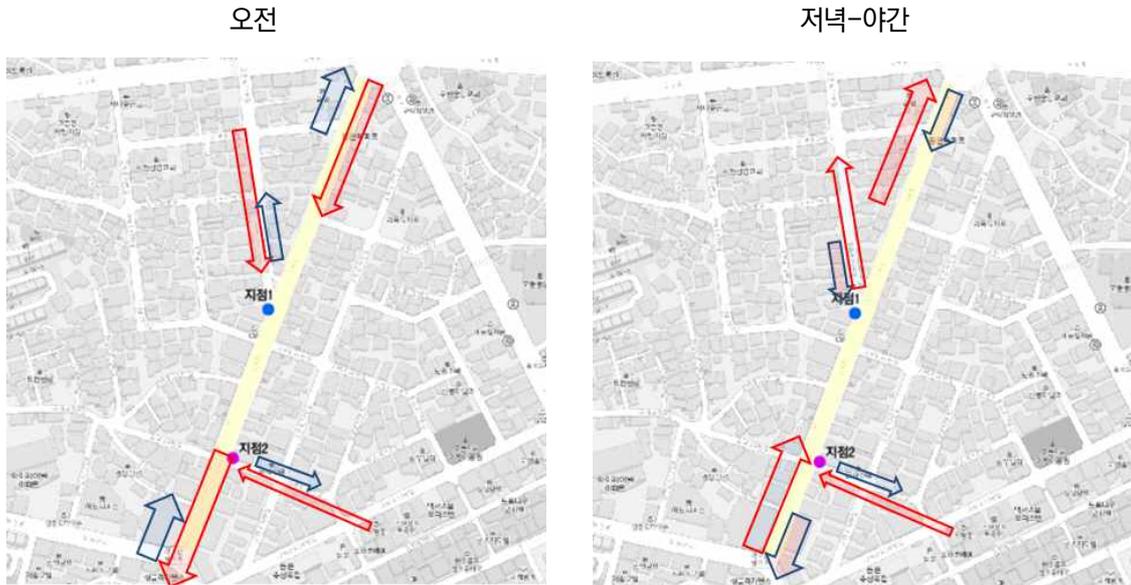
〈그림 3-11〉 고매로 남측 진출입 통행량



〈그림 3-12〉 셋길(매산로방향) 진출입 통행량



〈그림 3-13〉 고매로 통행량 경향



고매로의 전체적인 통행량 경향을 보면 고매로 남측 셋길을 빼고 오전과 저녁 및 야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전에는 북측에서 남측으로 이동하는 통행량이 많으며, 저녁시간에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이동하는 통행량이 많다.

이는 주로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동시에 버스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고매로 남측 매산로가 주요 출퇴근 경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오전에는 지역내 북측의 주거영역에서 매산로 방향의 남쪽으로 출근이 이루어지고, 저녁시간에는 매산로 방향에서 지역내 및 북측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남측부의 통행량이 북측의 통행량보다 많다는 측면에서 지역내 이용통행량 등 남측에서의 고매로로 진입하고 다시 남측으로 나가는 통행량이 북측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이해된다. 따라서 고매로의 메인 진입영역은 남측 갓매산로 삼거리쪽이라 할 수 있으며, 북측으로 점차 확산되어간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지역내 상점분포측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보여지고 있다. 즉, 북측 도청등의 이용자보다는 남측 매산로 및 수원역 일대의 유동인구의 고매로 이용자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점심 및 저녁시간대의 통행자들이 늘어나고, 저녁이후 시간대 통행량이 늘어나는 경향 통해 식사 및 야간유희 등 이용이 현재 고매로 일대 점포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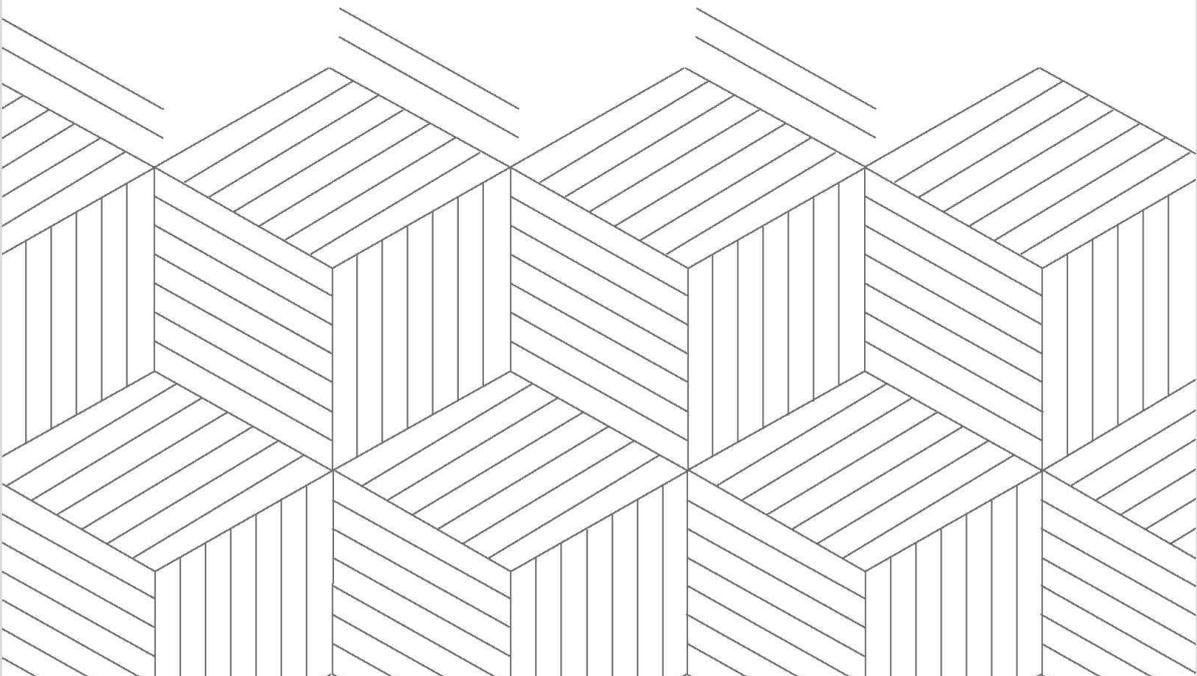
제4장

다문화 점포 및 고매로에 대한 인식

제1절 고매로에 대한 보행자 인식

제2절 고매로에 대한 영업자 인식

제3절 소결



제1절 고매로에 대한 보행자 인식

1.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누구나 쾌적한 특색 있는 가로로서의 다문화가로 조성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연구로, 해당 가로 이용자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한 기초질문 이외에 이용빈도 등 해당 가로 이용에 관한 사항, 만족도,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 해당 가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영업자로 선정하여 총 400개의 샘플 수를 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8년 4월 중 1주일간 진행하였다.

조사자에게 설문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대면방식을 통해 작성·수집되어 회수된 설문지는 보행자는 336부를 진행하였으며, 영업자는 39부가 유의미하게 작성되었다.(회수율 94%)

한편, 보행자에 대한 대면설문요청으로 설문진행과정에서 응답·불응답의 특이성이 보여지는 않았다. 따라서 응답자 비율 및 경향은 해당 통로 이용자 경향 및 비율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보행설문응답자 일반특성

1) 국적

응답자의 국적은 ‘한국’ 62.8%(211명), ‘중국’ 35.1%(118명), ‘베트남’ 0.9%(3명), ‘태국’ 0.3%(1명), ‘기타’ 0.9%(3명)로 한국인의 응답자비율이 가장 높아, 내국인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며,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 이용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그림 4-1> 설문응답자특성, 국적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한국	211	62.8
2	중국	118	35.1
3	베트남	3	0.9
4	태국(타이)	1	0.3
5	기타	3	0.9
-	합계	3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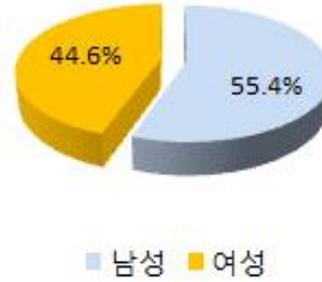


2) 성별

응답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55.4%(186명), '여성'이 44.6%(150명)로 남성의 비율이 약간 높다.

<그림 4-2> 설문응답자특성, 국적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남성	186	55.4
2	여성	150	44.6
-	합계	3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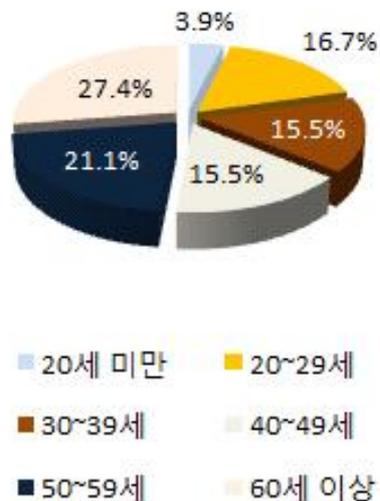
3) 연령

응답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전체 응답자 중 27.4%(92명)으로 가장 많고, '50~59세'가 21.1%(71명), '20세~29세' 16.7%(56명), '40세~49세', '30세~39세' 15.5%(52명), '20세 미만'¹²⁾ 3.9%(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는 주로 50대 이상이며, 비율상 비교적 20대의 젊은 인구도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설문응답자특성, 연령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60세 이상	92	27.4
2	50세~59세	71	21.1
3	20세~29세	56	16.7
4	40세~49세	52	15.5
5	30세~39세	52	15.5
6	20세 미만	13	3.9
-	합계	3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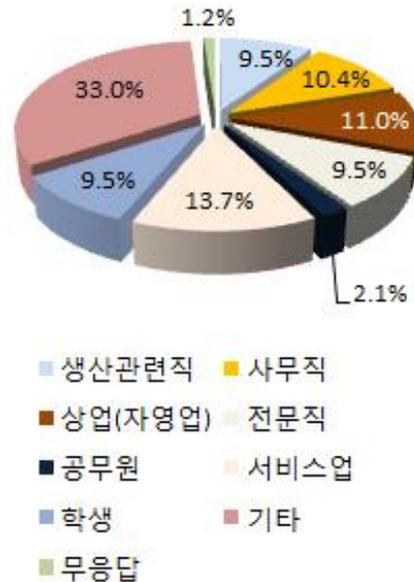
12) 20세 미만 이동인구는 학업등의 영향으로 그 수가 적으나 지역은 음주를 포함하는 식당용 점포 등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그 이용고객 특성상 별도의 보정을 수행하지 않았다.

4) 직업

응답자의 직업 분포를 보면 '서비스업'이 13.7%(46명)로 가장 많았고, '상업(자영업)'이 11.0%(37명), '사무직' 10.4%(35명), '생산관련직', '전문직', '학생'이 공히 각각 9.5%(32명), '공무원' 2.1%(7명), '기타' 33.0%(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설문응답자특성,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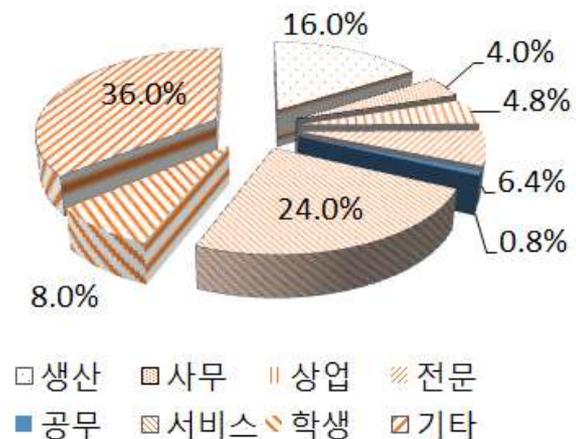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서비스업	46	13.7
2	상업(자영업)	37	11.0
3	사무직	35	10.4
4	생산관련직	32	9.5
5	전문직	32	9.5
6	학생	32	9.5
7	공무원	7	2.1
8	기타	111	33.0
0	무응답	4	1.2
-	합계	336	100



이중 외국인 응답자 122명의 직업분포를 보면 서비스업 및 생산관련직 비율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응답을 제외하는 경우는 63.3%에 달한다. 학생 비율은 8.2%이며 기타응답을 제외하는 경우는 1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5> 설문응답자특성, 외국인 직업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서비스업	30	24.0
2	생산관련직	20	16.0
3	학생	10	8.0
4	전문직	8	6.4
5	상업	6	4.8
6	사무	5	4.0
7	공무원	1	0.8
8	기타	45	36.0
-	합계	125	100



5)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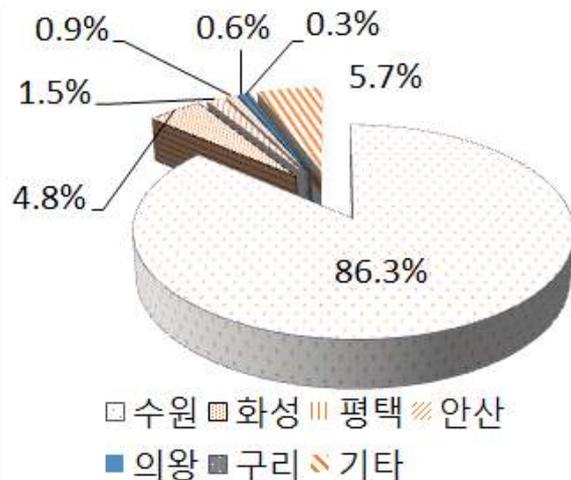
응답자들의 거주지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한다는 응답이 290명(86.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화성시’가 4.8%(16명), ‘평택시’가 1.5%(5명), ‘안산시’가 0.9%(3명), ‘의왕시’가 0.6%(2명) ‘구리시’ 0.3%(1명)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 4.0%(19명)이다.

외국인 응답자 125명에 대한 비율은 수원시가 87.2%(109명), 화성시가 4.8%(6명), 평택이 2.4%(3명), 안산과 의왕이 각각 0.8%(1명), 그 외 지역이 4.0%(5명)이었다.

대상지역의 방문자는 대부분 수원거주자이며, 화성, 평택, 안산, 의왕 등지의 거주외국인들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6> 설문응답자특성, 거주지

순위	구분	빈도	비율 (%)	외국인	
				빈도	비율
1	수원시	290	86.3	109	87.2
2	화성시	16	4.8	6	4.8
3	평택시	5	1.5	3	2.4
4	안산시	3	0.9	1	0.8
5	의왕시	2	0.6	1	0.8
6	구리시	1	0.3	-	-
7	그 외 지역	19	5.7	5	4.0
-	합계	336	100	12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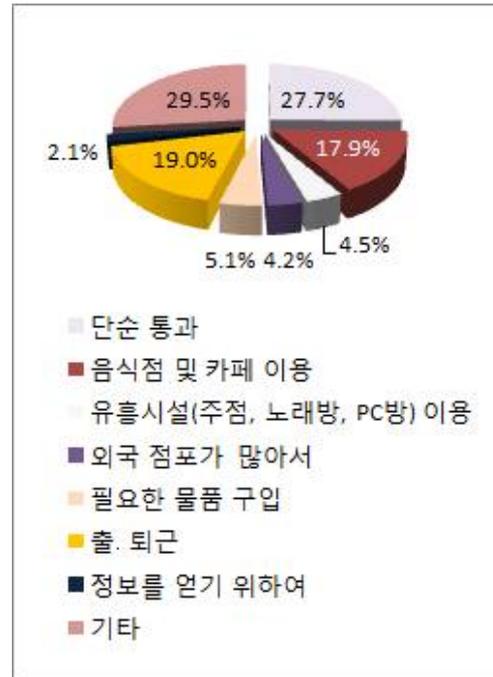
3. 고매로 이용현황

1) 고매로를 이용하는 이유

먼저, 고매로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순 통과’ 27.7%(93명)를 제외하면, ‘출·퇴근’ 19.0%(64명)로 이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와 함께, ‘음식점 및 카페 이용’ 17.9%(60명)의 빈도가 높았다. 그 외에, 필요한 물품 구입’ 5.1%(17명), ‘유흥시설(주점, 노래방, PC방) 이용’ 4.5%(15명), ‘외국 점포가 많아서’ 4.2%(14명), ‘정보를 얻기 위해’ 2.1%(7명), ‘기타’ 29.5%(99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이유로는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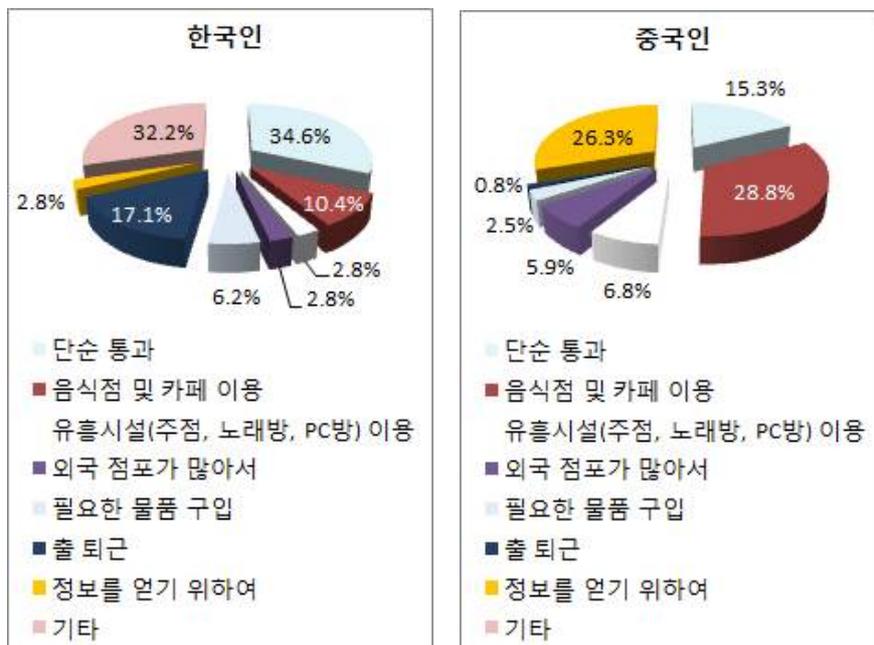
<그림 4-7> 고매로 이용 이유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단순 통과	93	27.7
2	출·퇴근	64	19.0
3	음식점 및 카페 이용	60	17.9
4	필요한 물품 구입	17	5.1
5	유흥시설(주점, 노래방, PC방) 이용	15	4.5
6	외국 점포가 많아서	14	4.2
7	정보를 얻기 위해	7	2.1
8	기타	99	29.5
-	합계(복수응답)	369/336명	109.8



국적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인은 ‘단순통과’, ‘기타(거주지 근처)’, ‘출·퇴근’, ‘음식점 및 카페이용’을 이유로 고매로를 이용하며, 중국인 등은 ‘음식점 및 카페 이용’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보를 얻기 위하여’ 등을 주된 이유로 고매로에 방문한다. 내·외국인간 고매로 이용 목적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림 4-8> 고매로 이용 이유(국적별 비교)



2) 고매로 방문 빈도

고매로의 방문 빈도에 있어서는 ‘매일 방문’ 비율이 56.5%(190명), ‘한 달에 1회’ 17.6%(59명), ‘처음 방문’ 9.2%(31명), ‘1주일 2회 이상’ 8.9%(30명), ‘1주일 1회’ 6.5%(22명)으로, 과반 수 이상이 매일 방문하여 해당 가로를 이용한다. 따라서 매일 이용하는 이외인 41.5%가 지역 외 방문자라 할 수 있으며, 수원시외에 거주하는 46명의 경우는 매일방문 및 주2회 방문, 주1회 방문이 각각 4명씩이고, 23명이 한달에 1회 이상 방문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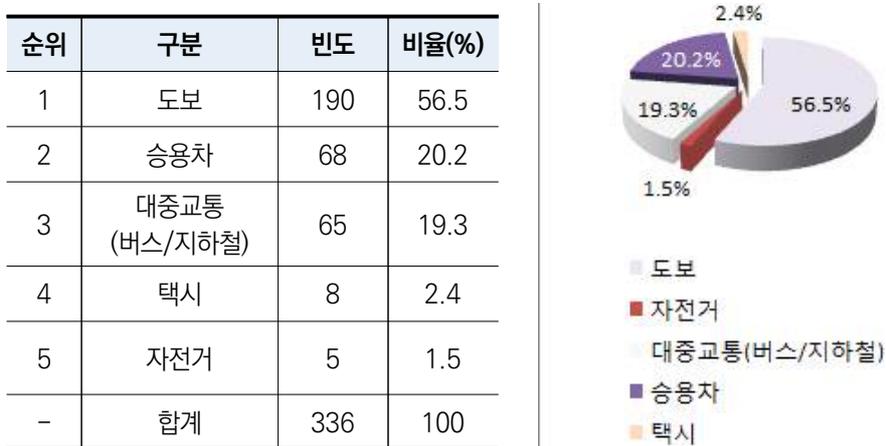
<그림 4-8> 고매로 방문 빈도



3) 고매로 방문 시 교통수단

해당 가로에 방문 시 ‘도보’로 방문하는 응답자가 56.5%(190명)으로 가장 많고, ‘승용차’ 20.2%(68명), ‘대중교통’ 19.3%(65명), ‘택시’ 2.4%(8명), ‘자전거’ 1.5%(5명) 이다.

<그림 4-10> 고매로 방문 시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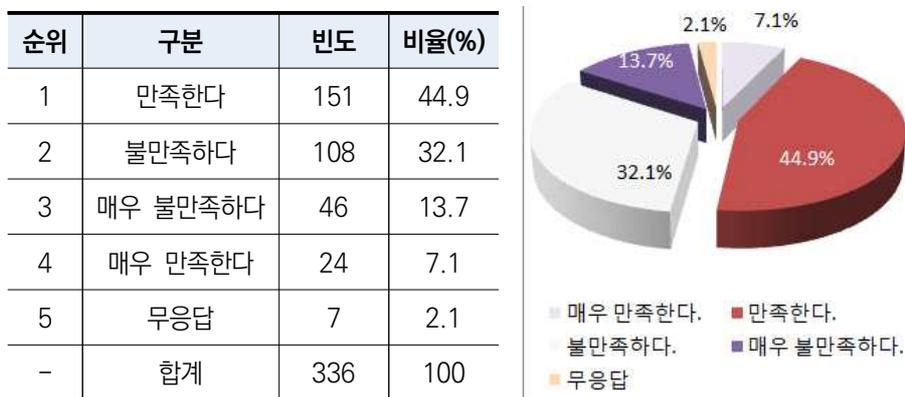


4. 고매로 이용 만족도

1) 현재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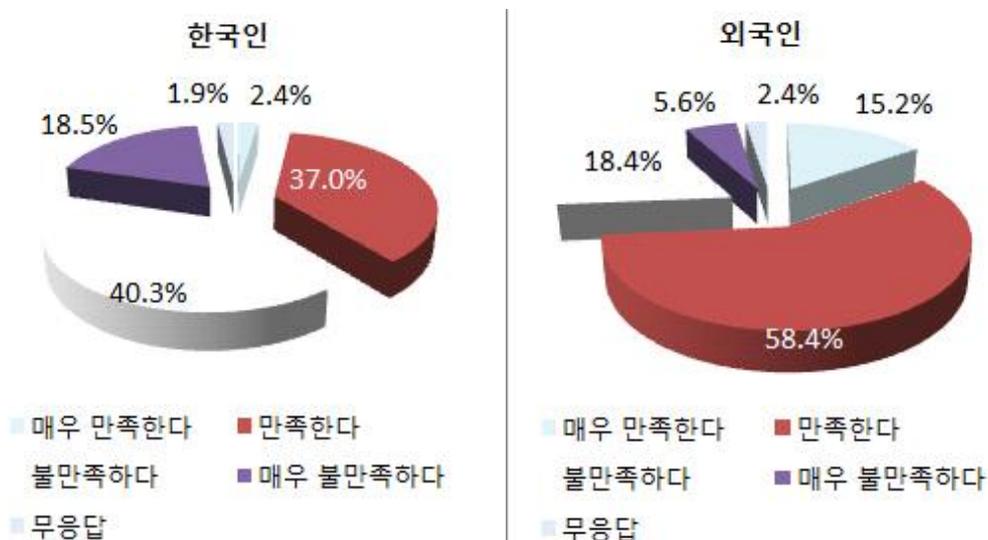
현재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 44.9%(151명), '불만족하다' 32.1%(108명), '매우 불만족하다' 13.7%(46명), '매우 만족한다' 7.1%(24명) 이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총 52%(175명),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45.8%(154명)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조금 더 높다.

<그림 4-11> 현재 고매로에 대한 보행이용자 만족도



국적별 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외국인의 73.6%는 고매로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을 한 반면, 한국인의 만족도는 39.4%에 불과하고, 불만족이 오히려 과반수가 넘는 58.8%로, 한국인의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는 외국인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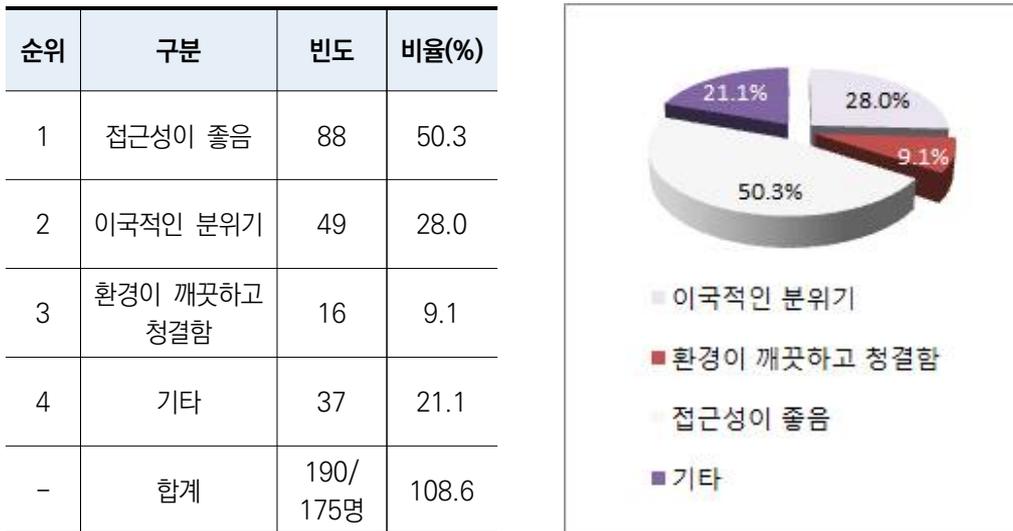
<그림 4-12> 현재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국적별 비교)



2) 현재 고매로에 만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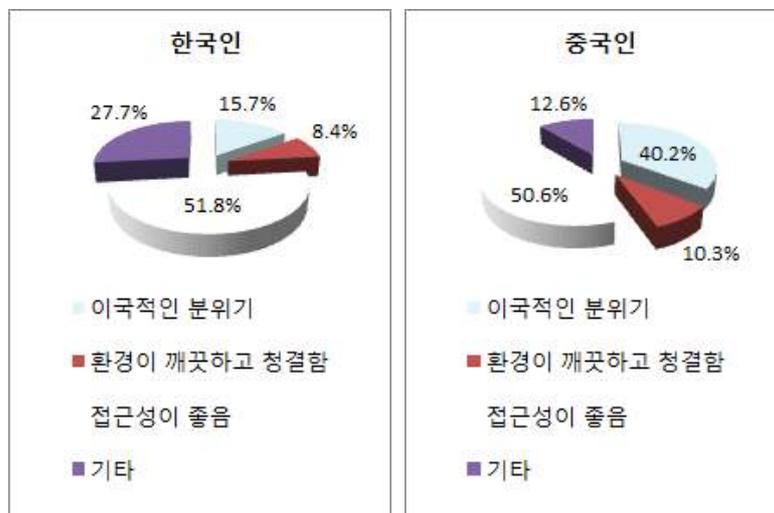
현재 고매로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을 한 52%(175명)의 만족 이유로는 ‘접근성이 좋음’ 50.3%(88명), ‘이국적인 분위기’ 28.0%(49명), ‘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함’ 9.1%(16명), ‘기타’ 21.1%(37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고매로에 만족하는 이유



한국인과 중국인 두 대상 모두 접근성이 좋아 만족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각 51.8%, 50.6%). 이국적인 분위기(15.7%, 40.2%), 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하다(8.4%, 10.3%)는 이유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위치적으로 수원역과 인접하고, 대중교통 시설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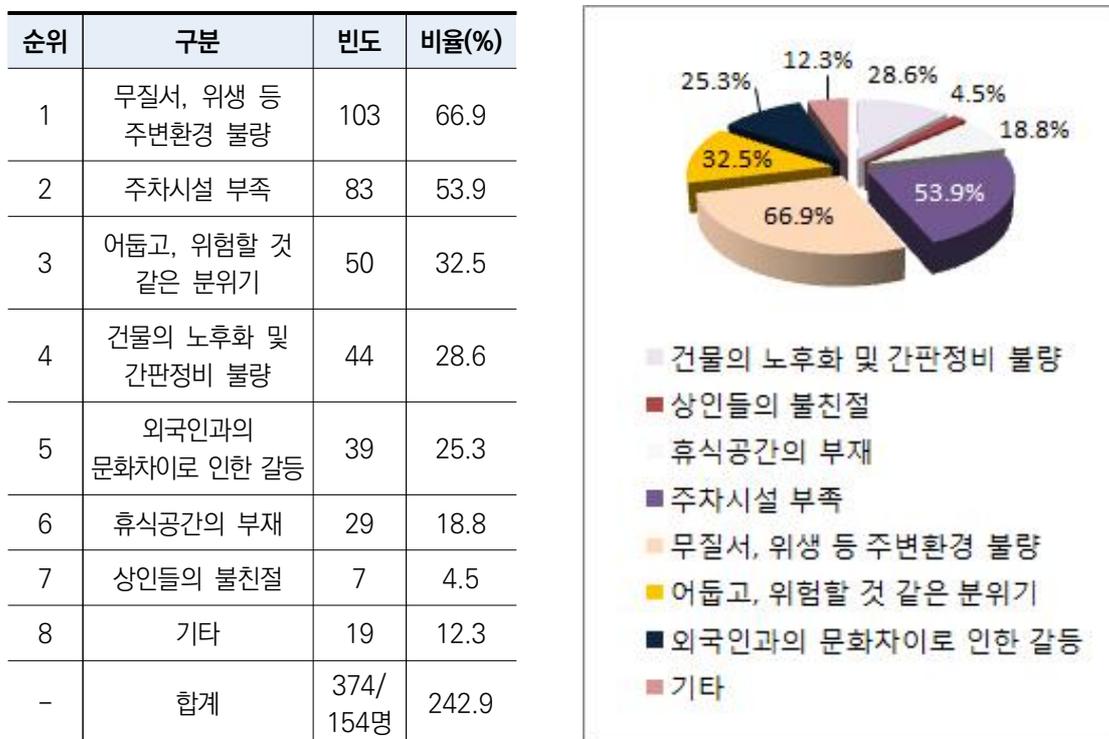
<그림 4-14> 고매로에 만족하는 이유(국적별 비교)



3) 현재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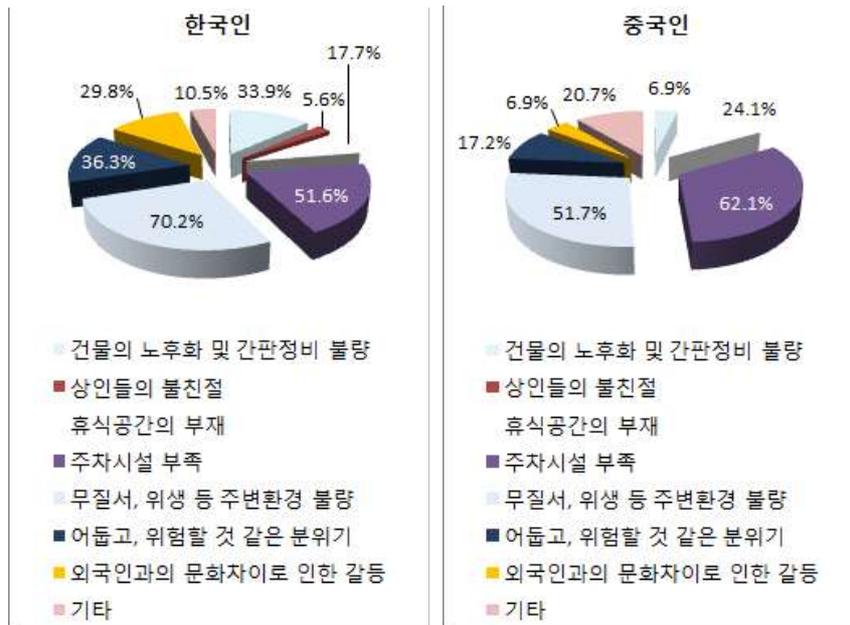
현재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45.8%(154명)의 불만족 이유로는 ‘무질서, 위생 등 주변환경 불량’ 66.9%(103명), ‘주차시설 부족’ 53.9%(83명), ‘어둡고, 위험할 것 같은 분위기’ 32.5%(50명), ‘건물의 노후화 및 간판정비 불량’ 28.6%(44명), ‘외국인과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25.3%(39명), ‘휴식공간의 부재’ 18.8%(29명), ‘상인들의 불친절’ 4.5%(7명), ‘기타’ 12.3%(19명) 순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답하였다.

<그림 4-15>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국적별로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경우, 무질서한 거리와 위생 등 주변환경이 불량하다는 응답이 70.2%로 가장 높으며,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51.6%로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경우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으며, ‘무질서, 위생 등 주변환경 불량’ 51.7%로 두 대상 모두 비슷한 이유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고매로가 어둡고, 위험할 것 같은 분위기에 다소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인의 경우,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불만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고매로에는 앉을 수 있는 공공벤치가 부족하여 상점 앞 인도나 계단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4-16>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국적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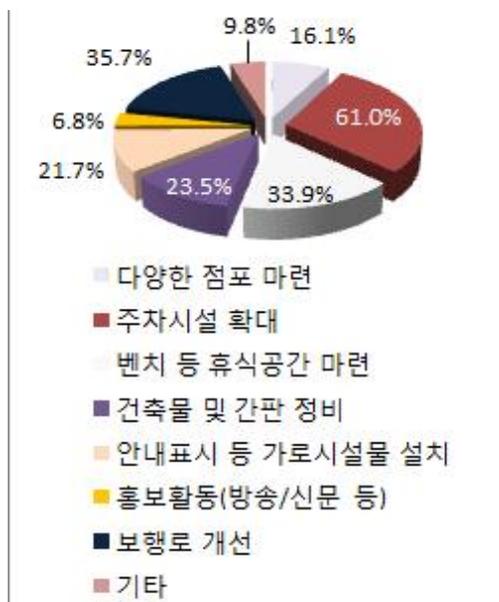


4) 고매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고매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주차시설 확대’ 61.0%(205명), ‘보행로 개선’ 35.7%(120명), ‘벤치 등 휴식공간 마련’ 33.9%(114명), ‘건축물 및 간판 정비’ 23.5%(79명), ‘안내표시 등 가로시설물 설치’ 21.7%(73명), ‘다양한 점포 마련’ 16.1%(54명), ‘홍보활동’ 6.8%(23명), ‘기타’ 9.8%(33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고매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주차시설 확대	205	61.0
2	보행로 개선	120	35.7
3	벤치 등 휴식공간 마련	114	33.9
4	건축물 및 간판 정비	79	23.5
5	안내표시 등 가로시설물 설치	73	21.7
6	다양한 점포 마련	54	16.1
7	홍보활동	23	6.8
8	기타	33	9.8
-	합계	374/154명	242.9



고매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을 국적별로 비교했을 때, 두 대상 모두 ‘주차시설 확대’를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응답하였다(한국인 59.7%, 중국인 64.4%). 현재 고매로는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현황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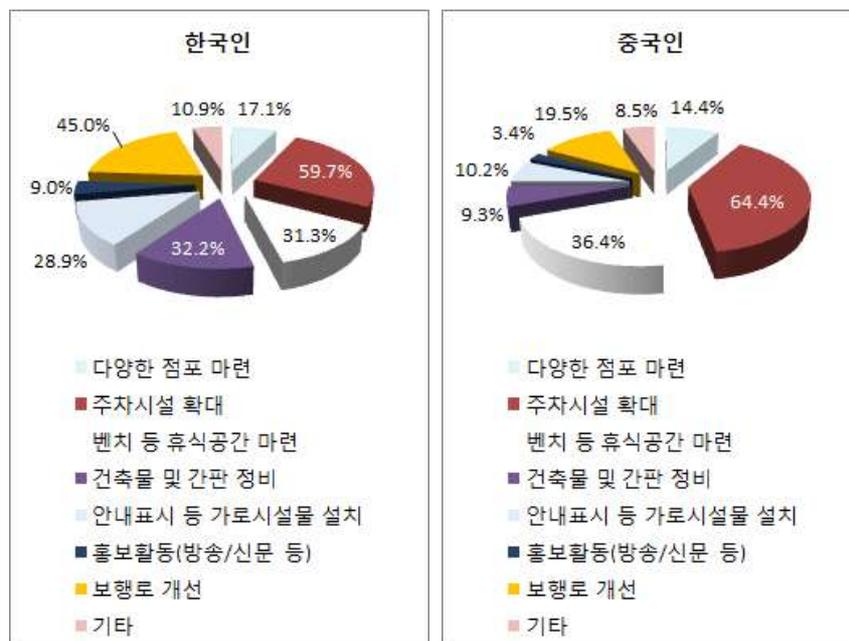
가로경관에 대한 사항에서는 내외국인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인은 보행로개선(45%), 건축물 및 간판정비(32.2%), 벤치 등 휴식공간(31.3%), 안내표시 등 가로시설물 설치(28.9%)에 대해 요구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중국인의 경우는 벤치 등 휴식공간(36.4%), 보행로개선(19.5%)로 요구도가 낮았다.

전체적으로 중국인의 경우 자신의 활동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간접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의 지원 경험에 따른 공공지원 범위에 대한 인식문제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문제가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로보행환경(경관) 개선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8> 고매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국적별 비교)



제2절 고매로에 대한 영업자 인식

1. 설문응답자 특성

1) 국적

고매로 영업자의 국적을 보면 ‘한국’ 64.1%(25명), ‘중국’ 35.9%(14명)로 현재는 한국인의 비율이 조금 더 많다. 외국인은 모두 중국계이다.

<그림 4-19> 설문응답자특성, 국적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한국	25	64.1
2	중국	14	35.9
3	베트남	0	0
4	태국(타이)	0	0
5	기타	0	0
-	합계	3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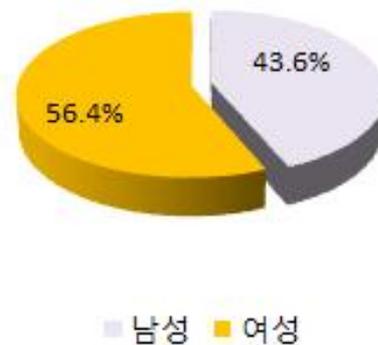


2) 성별

성별은 ‘여성’ 56.4%(22명), ‘남성’ 43.6%(17명)로 여성 영업자 비율이 높다.

<그림 4-20> 설문응답자특성, 성별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여성	22	56.4
2	남성	17	43.6
-	합계	3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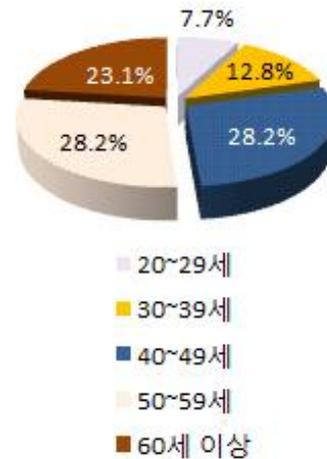


3) 연령

응답자의 연령은 ‘40세~49세’ 와 ‘50세~59세’ 가 각 28.2%(11명)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23.1%(9명), ‘30세~39세’ 12.8%(5명), ‘20세~29세’ 7.7%(3명) 순이다.

<그림 4-21> 설문응답자특성, 연령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40세~49세	11	28.2
2	50세~59세	11	28.2
3	60세 이상	9	23.1
4	30세~39세	5	12.8
5	20세~29세	3	7.7
6	20세 미만	0	0
-	합계	3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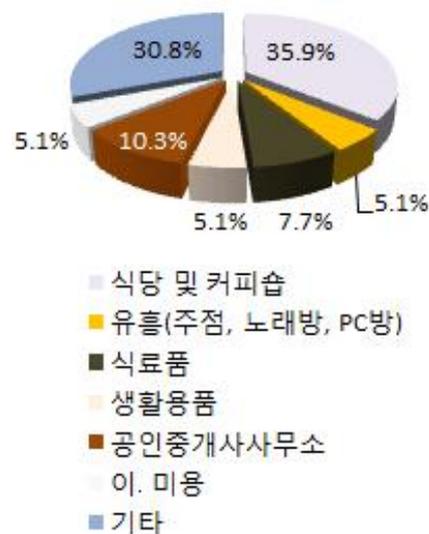


4) 업종

응답자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 및 커피숍’ 35.9%(14명), ‘공인중개사’ 10.3%(4명), ‘식료품’ 7.7%(3명), ‘유흥(식당, 노래연습장, PC방 등)’ ‘생활용품’, ‘이·미용’ 각 5.1%(2명), ‘기타’ 30.8%(12명)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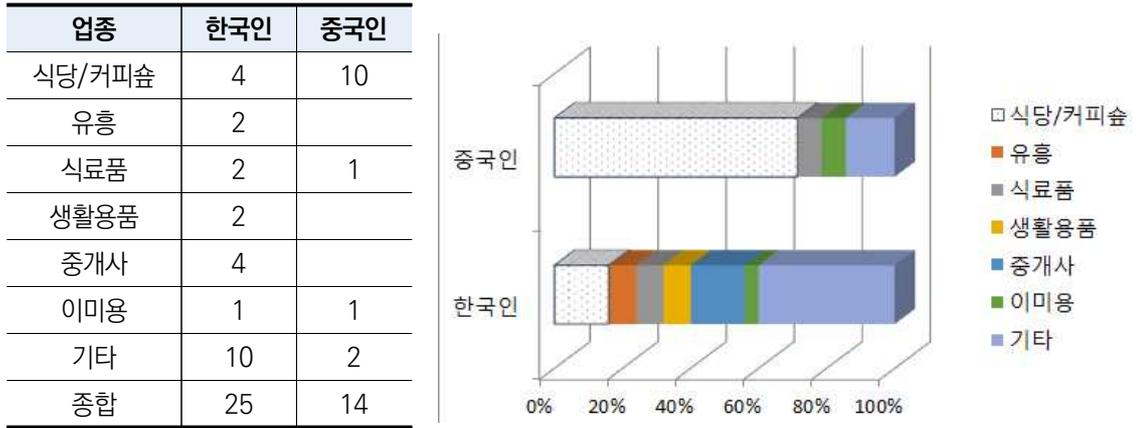
<그림 4-22> 설문응답자특성, 업종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식당 및 커피숍	14	35.9
2	공인중개사	4	10.3
3	식료품	3	7.7
4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2	5.1
5	생활용품	2	5.1
6	이·미용	2	5.1
7	기타	12	30.8
-	합계	39	100



다만, 한국인 점포의 경우 업종이 다양하게 분포하는데 비해 중국인 점포는 14개 중 10개가 식당이라는 업종의 집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3> 사업장(점포) 소유형태



5) 사업장(점포) 소유형태

사업장(점포)의 소유형태를 보면, ‘임대’ 가 94.9%(37명), ‘소유’ 5.1%(2명)으로 대부분이 매장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14명 모두 임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림 4-24> 사업장(점포) 소유형태



6) 사업장(점포) 외국인 종업원 고용

사업장(점포)에 외국인 종업원이 있는가에 대한 사항에서 ‘없다’는 응답이 61.5%(24명)이며, ‘있다’는 응답이 38.5%(15명)이다. 영업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영업주의 경우 64.3%가 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한국인 영업주의 경우는 24%로 중국인 영업주의 외국인 종업원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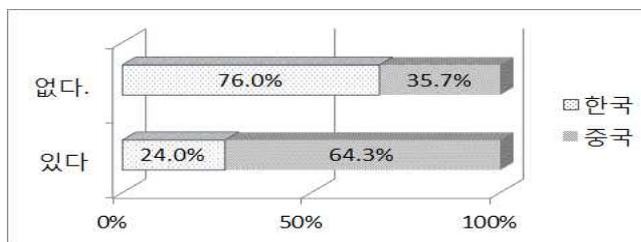
<그림 4-25> 외국인 종업원 유무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없다	24	61.5
2	있다	15	38.5
-	합계	39	100



<그림 4-26> 영업주국적별 외국인 종업원 유무

외국인 종업원	영업주 국적	
	한국	중국
있다.	6	9
없다.	19	5
합계	25	14



7) 거주지

영업자들의 거주지는 '수원시' 92.3%(36명)가 대부분이며 이 외에도 '화성시'와 '안산시', '그 외 지역'에 각 2.6%(1명)로 응답하였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인 영업자(25명) 중 시외거주자로 답한 사람은 1명(4%)이고, 중국인 영업자 14명중 2명(14.3%)이 시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대상 영업자의 업종도 식당과 이미용로 업종에 따른 영향은 아니었으며, 영업기간과도 상관성이 없다.

<그림 4-27> 설문응답자특성, 거주지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수원시	36	92.3
2	화성시	1	2.6
3	안산시	1	2.6
7	그 외 지역	1	2.6
-	합계	39	100



8) 영업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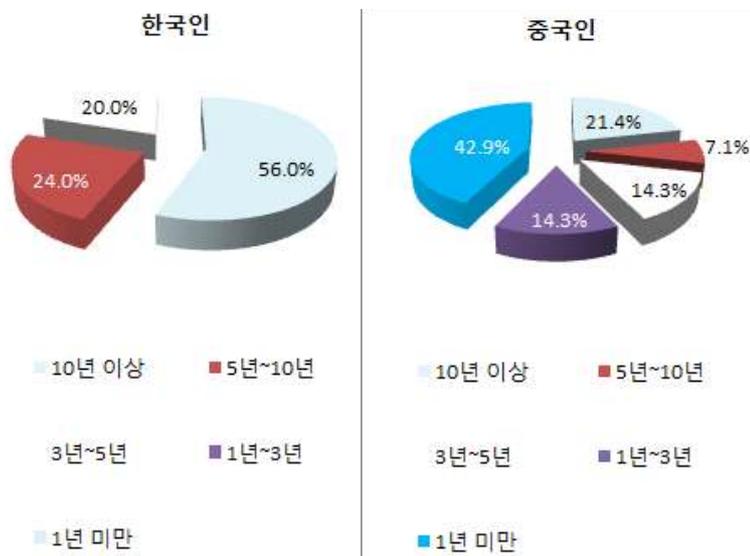
고매로에서 영업하게 된 기간으로는 '10년 이상' 이 43.6%(17명), '5년~10년'과 '3년~5년' 이 각 17.9%(7명), '1년 미만' 15.4%(6명), '1년~3년' 5.1%(2명) 으로 5년 이상 장기간 영업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61.5%(39명)으로 과반 수 이상이다.

<그림 4-28> 설문응답자특성, 영업기간



고매로에서의 영업기간을 국적별로 비교했을 때, 한국인 영업자는 '10년 이상' 56.0%, '5년~10년' 24%, '3년~5년' 20%로 장기간 영업해온 응답자가 대부분인 반면, 중국인들의 영업기간은 '1년 미만'이 42.9% 로 가장 많았다. 최근 한국인 영업자는 신규 영업자가 거의 없으며, 신규중국인 영업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 영업자는 감소하고 중국인 영업자의 증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29> 설문응답자특성, 영업기간(국적별 특성)



9) 영업상황(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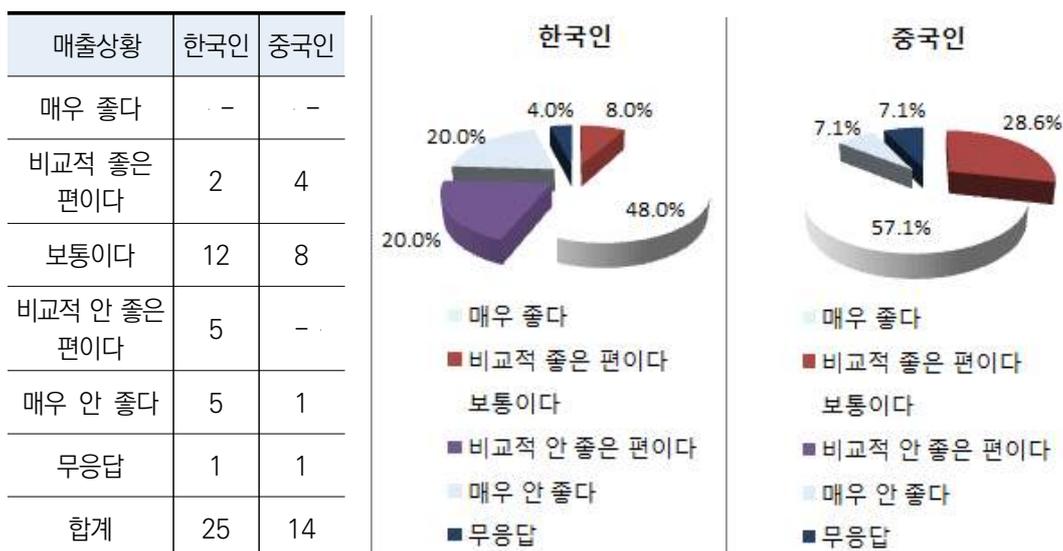
응답자들의 영업장 매출 상황으로 51.3%(20명)가 ‘보통이다’ 15.4%(6명)가 ‘매우 안 좋다’, ‘비교적 좋은 편이다’, 12.8%(5명)이 ‘비교적 안 좋은 편이다’ 라고 답하였다.

국적별로 보면 비교적 안좋은 편이거나 매우 안좋은 것은 대부분 한국인 영업점포로 외국인(중국인) 점포는 대부분 보통이상의 상황으로 응답되었다.

<그림 4-30> 설문응답자특성, 영업상황(매출)



<그림 4-31> 설문응답자특성, 영업상황(매출)



10) 사업장(점포) 방문객

사업장(점포)에 주 방문객의 국적으로는 ‘외국인’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74.4%(29명), ‘한국인’은 25.6%(10명) 이다.

<그림 4-32> 설문응답자특성, 사업장(점포) 방문객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외국인 방문이 과반 수 이상(60%) 이긴 하지만, 한국인을 주 고객으로(40%) 하는 비율도 높은 반면,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한국인보다는, 주로 외국인(중국인)을 주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이를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상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도 한국인 영업장보다 중국인 영업장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인에 의한 영업장(25개)이면서 외국인 방문객의 비율이 높은 점포(15개) 중, 외국인종업원을 고용한 곳은 2곳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업종이 식당, 유흥 등 외국인 일반방문객의 이용이 많은 업종이 적고 특히 식당 등은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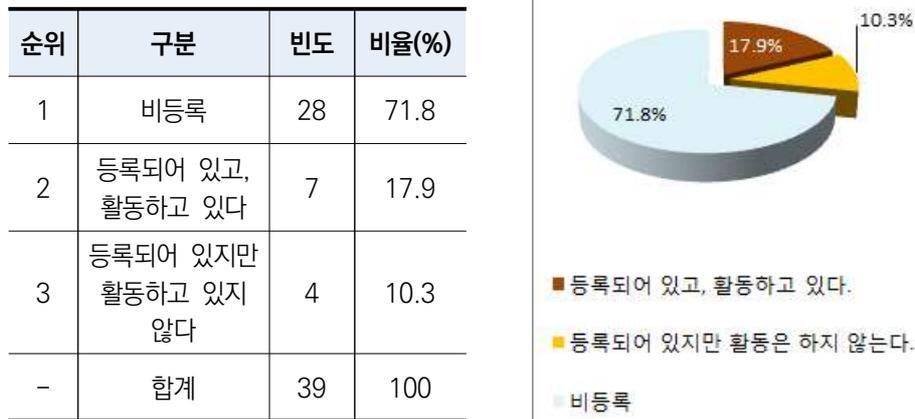
<그림 4-33> 설문응답자특성, 사업장(점포) 방문객(국적별 비교)



11) 지역상인 조직 등록 현황

지역상인 조직에 등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 71.8%(28명)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17.9%(7명)가 ‘등록되어 있고, 활동도 하고 있다’, 10.3%(4명)는 ‘등록되어 있지만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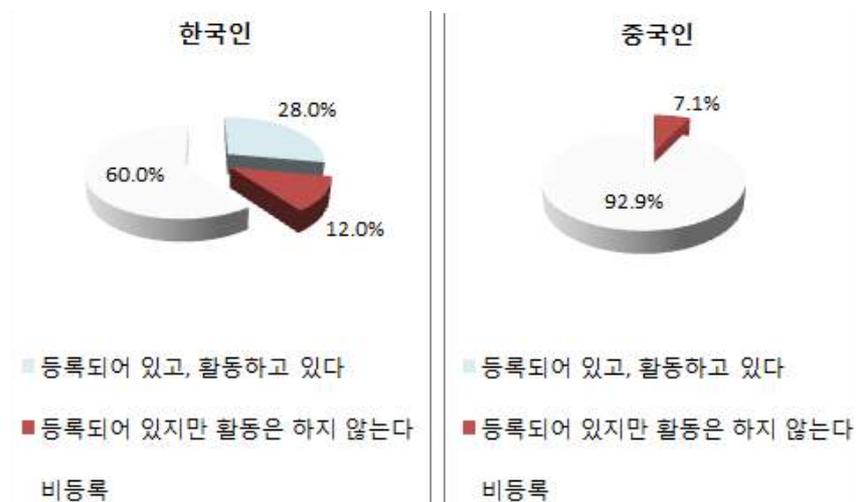
<그림 4-34> 설문응답자특성, 지역상인 조직 등록 현황



국적별로 비교했을 때, 두 대상 모두 지역상인 조직에 등록되어 있다는 응답이 매우 적었으나, 한국인의 경우 28.0%는 지역상인 조직에 등록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중국인의 경우 거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등록이 되어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응답자 14명 중 1명에 불과하다.

현 고매로에 영업을 하고 있는 중국인 영업자들은 지역상인조직 활동의 참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35> 설문응답자특성, 지역상인 조직 등록 현황(국적별 비교)



12) 지역상인 활동 회의 경험

또한, 지역상인 활동의 회의 경험에 대해서도 전체의 74.4%(29명)가 ‘경험이 없다’ 라고 답하였으며, 12.8%(5명)만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7.7%(3명)이다.

<그림 4-36> 설문응답자특성, 지역상인 활동 회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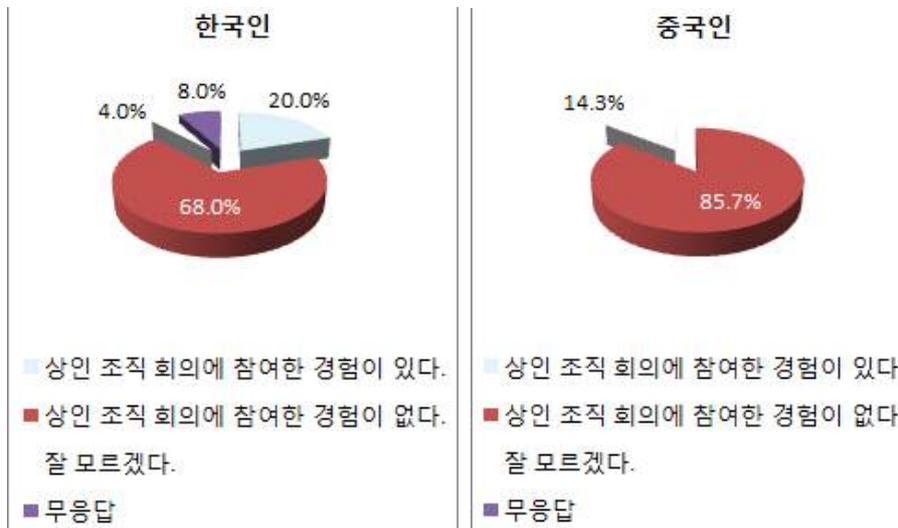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없다	29	74.4
2	있다	5	12.8
3	잘 모르겠다	3	7.7
4	무응답	2	5.1
-	합계	39	100



지역상인조직 등록 여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인의 경우 응답자 모두가 상인 조직 회의에 참여한 경험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하였다. 한국인의 경우도 20% 만 상인 조직 회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고매로는 전반적으로 지역 상인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며, 특히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그 참여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7> 설문응답자특성, 지역상인 활동 회의 경험(국적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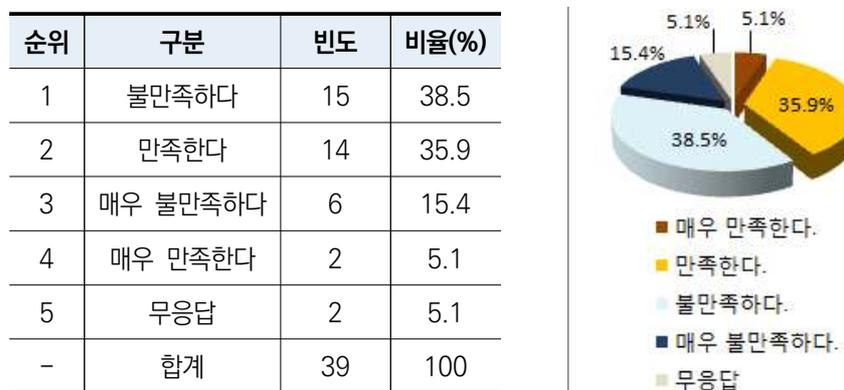
2. 고매로 이용 만족도

1) 현재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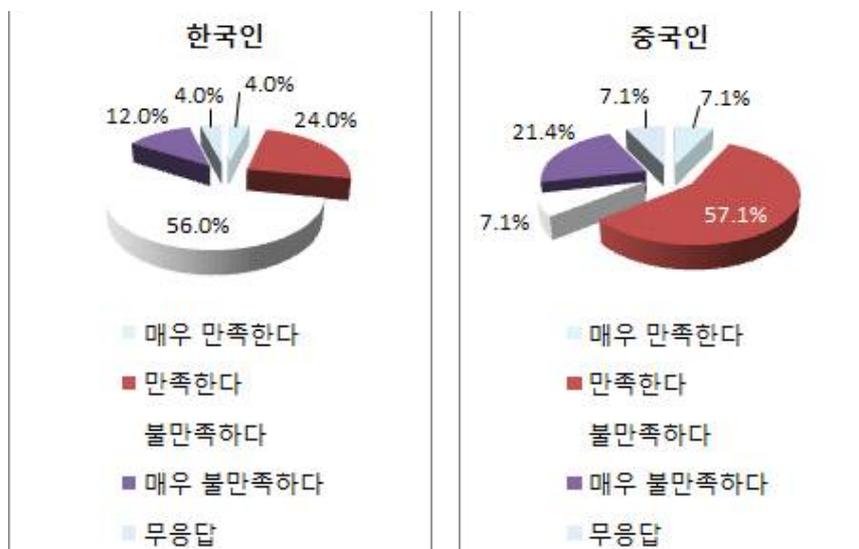
영업자들의 현재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불만족하다’ 38.5%(15명), ‘만족한다’ 35.9%(14명), ‘매우 불만족하다’ 15.4%(6명), ‘매우 만족한다’ 5.1%(2명) 이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총 41.0%(16명),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53.9%(21명)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다.

한국인 영업자는 보행자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로 매우 과반 수 이상이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국인(중국인) 영업자의 경우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4.2%로 높았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5%로 적은 편이다.

<그림 4-38> 현재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



<그림 4-39> 현재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국적별 비교)



2) 현재 고매로에 만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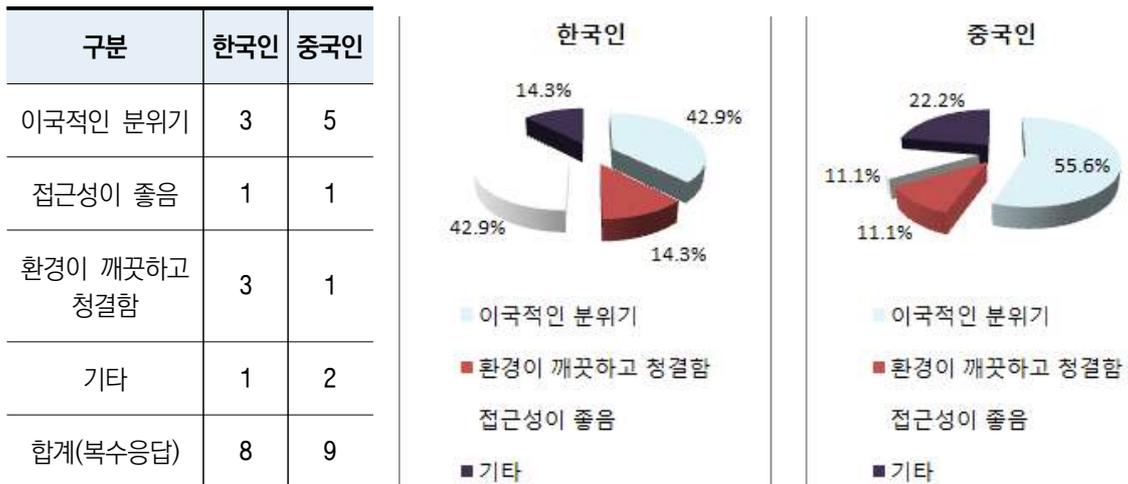
현재 고매로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을 한 41%(16명)의 만족 이유로는 ‘이국적인 분위기’ 50.0%(8명), ‘접근성이 좋음’ 25.0%(4명), ‘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함’ 12.5%(2명), ‘기타’ 18.8%(3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0> 고매로에 만족하는 이유



국적별로 비교해 보아도 이국적인 분위기는 공히 지역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41> 고매로에 만족하는 이유



3) 현재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현재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53.9%(21명)의 불만족 이유로는 ‘주차시설 부족’ 81.0%(17명), ‘무질서, 위생 등 주변환경 불량’ 71.4%(15명), ‘어둡고, 위험할 것 같은 분위기’ 52.4%(11명), ‘건물의 노후화 및 간판정비 불량’, ‘외국인과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등' 47.6%(10명), '한국인의 감소' 38.1%(8명), 휴식공간의 부재' 33.3%(7명), '기타' 4.8%(1명) 순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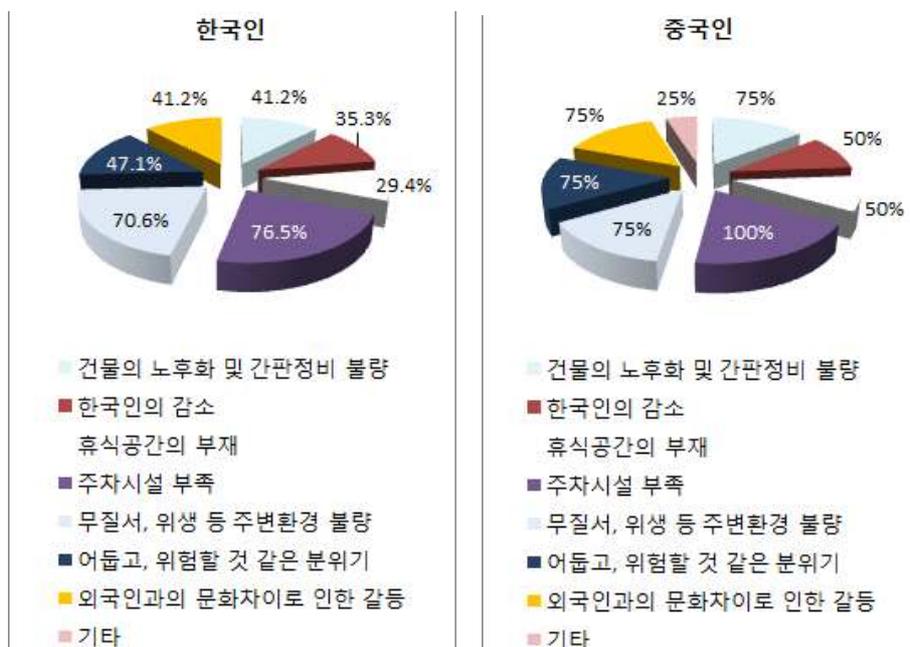
<그림 4-42>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주차시설 부족	17	81.0
2	무질서, 위생 등 주변환경 불량	15	71.4
3	어둡고, 위험할 것 같은 분위기	11	52.4
4	건물의 노후화 및 간판정비 불량	10	47.6
5	외국인과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10	47.6
6	한국인의 감소	8	38.1
7	휴식공간의 부재	7	33.3
8	기타	1	4.8
-	합계(복수응답)	79/21명	376.2



한국인 및 중국인 영업자 모두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서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무질서, 위생 등 주변환경 불량', '어둡고, 위험할 것 같은 분위기', '건물의 노후화 및 간판정비 불량', '외국인과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한국인의 감소', '휴식공간의 부재' 순으로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4-43> 고매로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국적별 비교)



4) 고매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

고매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주차시설 확대’ 89.7%(35명), ‘보행로 개선’, 33.3%(13명), ‘벤치 등 휴식공간 마련’ 33.3%(13명), ‘안내표시 등 가로시설물 설치’ 25.6%(10명), ‘상인들의 단합’ 23.1%(9명), ‘건축물 및 간판 정비’ 23.1%(9명), ‘다양한 점포 마련’ 17.9%(7명), ‘홍보활동’ 15.4%(6명), ‘기타’ 7.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자 입장에서는 주차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로 나타났으며, 건축물의 개선보다는 보행환경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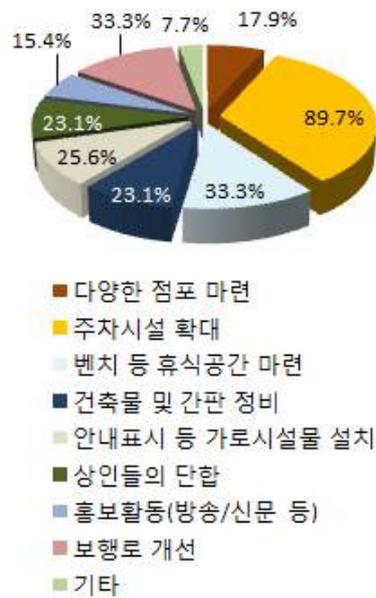
고매로의 활성화에 관한 한국인과 외국인(중국인)간의 인식차이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외국인(중국인) 영업주들에 비해 행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 영업장에 직접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지역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항목별로 보면 내외국인 모두 주차시설 확대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안내시설물 대해서는 한국인 영업자들만 높은비율로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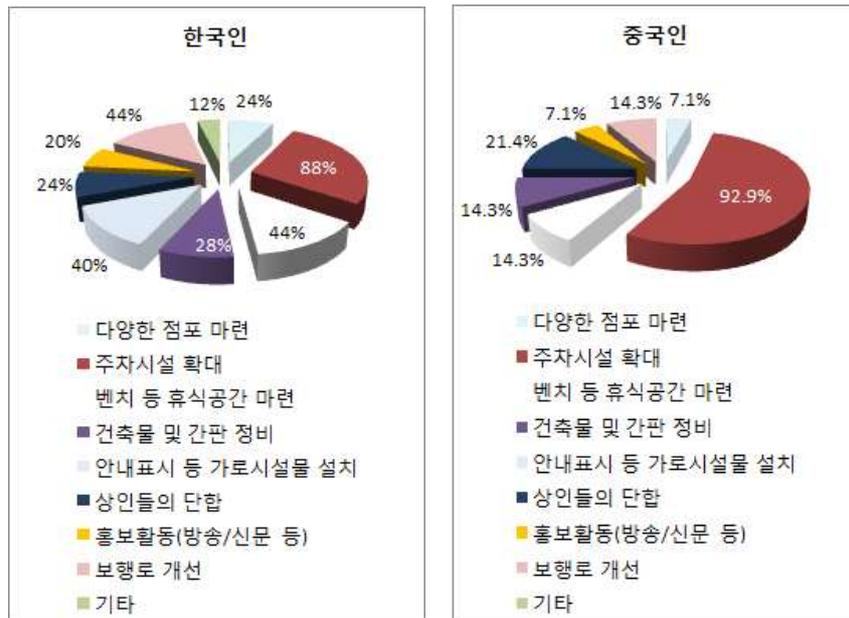
한편, 고매로 활성화 요소로서 내외국인 공히 20% 이상의 상인들이 ‘상인 간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지역조직으로서의 상인회 활동의 참여저조와 상반되는 결과로 지역상인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지만 현 여건상 이에 대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며, 향후 지역 상인회 등의 공동대응 활동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고매로내 상인들의 조직활동 활성화의 개연성이 높다 할 수 있다.

<그림 4-44> 고매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

순위	구분	빈도	비율(%)
1	주차시설 확대	35	89.7
2	보행로 개선	13	33.3
3	벤치 등 휴식공간 마련	13	33.3
4	안내표시 등 가로시설물 설치	10	25.6
5	상인들의 단합	9	23.1
6	건축물 및 간판 정비	9	23.1
7	다양한 점포 마련	7	17.9
8	홍보활동	6	15.4
9	기타	3	7.7
-	합계(복수응답)	105/39명	269.2



<그림 4-45> 고매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국적별 비교)



5) 고매로 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역할

<그림 4-46> 고매로 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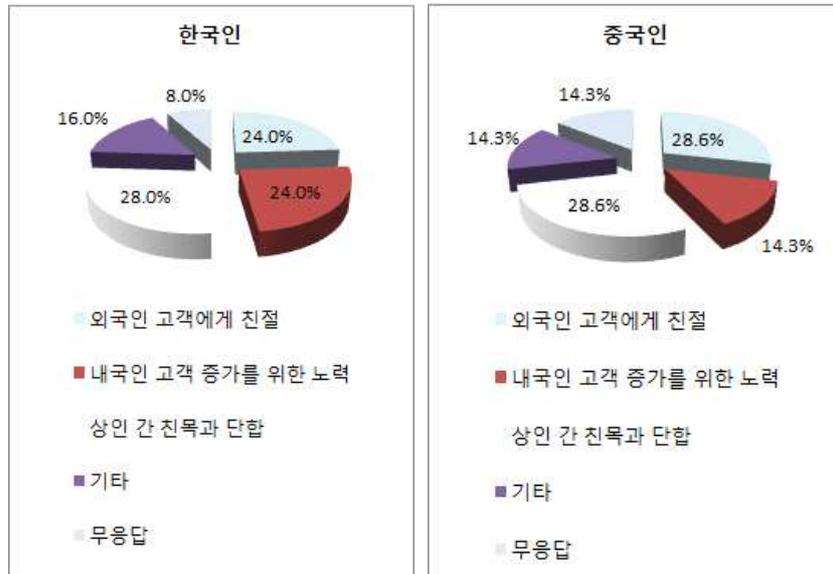


고매로의 발전을 위해 상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28.2%(11명) ‘상인 간 친목과 단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25.6%(10명)는 ‘외국인 고객에게 친절’해야 하며, 20.5%(8명)는 ‘내국인 고객 증가를 위한 노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기타사항으로는 주기적인 쓰레기청소 및 처리지정장소 설치 등 쓰레기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고, 인도 보도블럭의 정비도 제기되었다.

영업주 국적별로 비교해 보면 내국인 고객유치에 대해 한국인이 더 강한 필요성을 인식하

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인식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4-47> 고매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국적별 비교)



제3절 소결

고매로 일대의 이용자 및 영업자들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매로 방문이용자

고매로는 외국인의 방문이용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외국인 중에서는 중국인 이용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용자는 주로 50대 이상이며, 동시에 2~30대의 젊은 인구도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외국인 방문이용자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서비스업 및 생산관련직 비율이 높다.

이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수원이며, 화성, 평택, 안산, 의왕 등지의 거주외국인들도 있다.

고매로의 주된 이용목적은 보면, 한국인은 '단순통과', '기타(거주지 근처)', '출·퇴근', '음식점 및 카페이용'이며, 외국인은 '음식점 및 카페 이용'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보를 얻기 위하여' 등을 주된 이유로 고매로에 방문한다.

해당지역은 지역의 방문자 비율이 많고, 방문 시 대부분 '도보'(56.5%) 및 '대중교통' 19.3%(65명)을 이용하는데, '승용차'이용 비율20.2%도 적지는 않다.

고매로에 대해 외국인의 73.6%는 만족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39.4%)는 외국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

만족 이유로는 '접근성'과 '이국적인 분위기'였고 이국적인 분위기는 특히, 외국인이 고매로를 만족하는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불만이유로는 '무질서, 위생 등 주변환경 불량', '주차시설 부족', '어둡고, 위험할 것 같은 분위기', '건물의 노후화 및 간판정비 불량', '외국인과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휴식공간의 부재', '상인들의 불친절' 순으로 물리적 환경이 크게 좌우하고 있다.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무질서한 거리와 위생 등 주변환경 불량, 주차시설 부족 등이 주요 불만이유로 선정되었다. 다만 이외에 한국인은 어둡고, 위험할 것 같은 분위기 등 안전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고, 외국인은, 휴식공간이 부족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실제 인도나 계단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외국인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고매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내외국인 모두 '주차시설 확대'를 가장 필요하게 여기고 있다. 현재 고매로는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현황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가로경관에 대한 사항에서는 내외국인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인은 보행로개선(45%), 건축물 및 간판정비(32.2%), 벤치 등 휴식공간(31.3%), 안내

표시 등 가로시설물 설치(28.9%)에 대해 요구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중국인의 경우는 벤치 등 휴식공간(36.4%), 보행로개선(19.5%)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인의 경우 자신의 활동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간접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매로 방문이용자들은 고매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와 가로보행환경(경관) 개선이 주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다.

② 고매로 영업자

현재는 한국인 영업자의 비율이 높으나 신규영업자는 대부분 외국인(중국인)이며, 향후 외국상점 점유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임대관계에 있으며, 업종으로는 외국인 운영 식당의 비율이 높으며 향후 이러한 경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자들은 대부분 '수원시' 내에 거주하고 있다.

매출면에서도 부정적인 경우는 대부분 한국인 영업점포인 반면, 외국인(중국인) 점포는 대부분 보통이상의 영업상황으로 응답되었다. 영업자들의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인 영업자들의 불만이 높고, 외국인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

현재, 신규 영업자중 한국인은 없으며, 식당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들의 신규영업이 많은데, 향후에도, 한국인 영업자 감소와 중국인 영업자의 증가 경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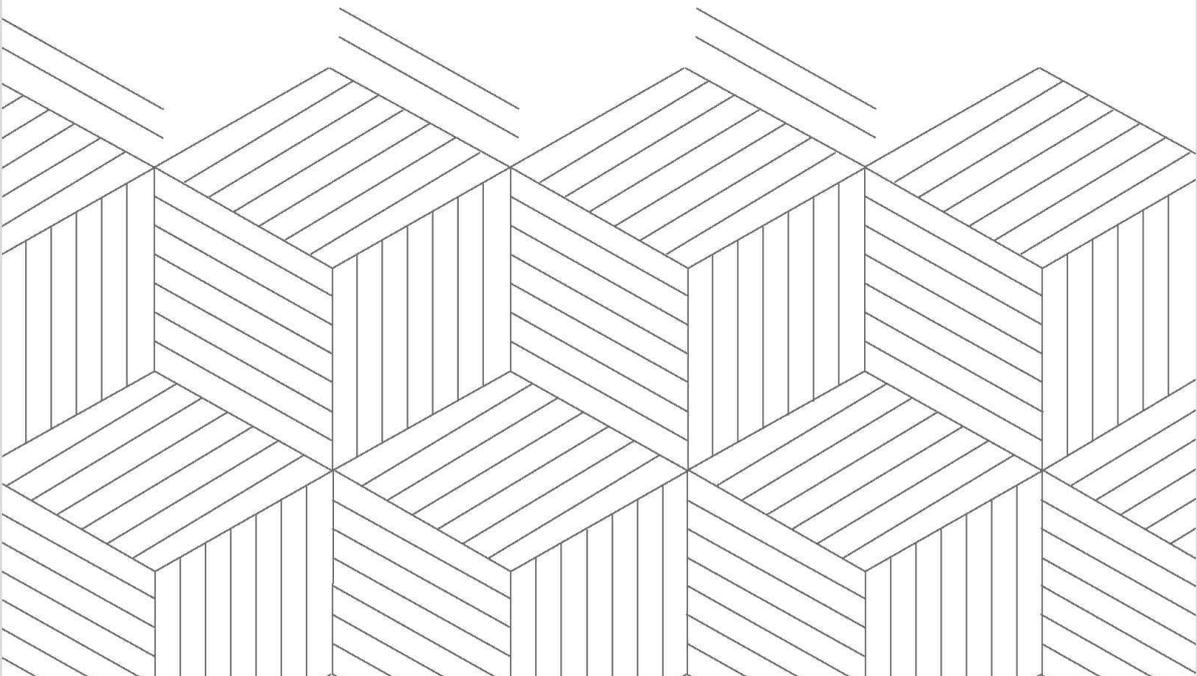
고매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는 '주차시설' 및 가로보행 및 휴식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건물을 포함하는 가로경관개선이 요구된다. 이때, 지역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주요 요소중 하나인 이국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내외국인 공히 20% 이상의 상인들이 '상인 간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 고매로는 지역 상인들의 조직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외국인(중국인)의 참여활동은 거의 없으나, 향후 지역 상인회 등의 공동대응 활동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고매로 내 상인들의 조직활동 활성화의 개연성이 높다 할 수 있다. 고매로의 발전을 위해 상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상인 간 친목과 단합'이 가장 필요하고, '외국인 고객에게 친절', '내국인 고객 증가를 위한 노력'등의 순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종업원이 있는 영업장 비율이 38.5%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측면에서도 해당 지역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5장 결론

제1절 종합
제2절 정책적 제언



제1절 종합

본 연구는 수원역 근처 고매로 일대가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점포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되는 속에서 이러한 상황변화가 도시경관, 생활 및 심리적 안전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시관리측면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수원시에 부담을 주는 지역이 아니라 수원시의 발전과 이미지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고매로 일대가 양질의 외국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가로로 형성·유도하기 위한 가능성과 정비방향을 확인, 수원시의 해외문화를 수용하는 문화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쇠락해 가는 구도심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인밀집지역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를 조사하고 지역내의 현황과 과제를 현장 통행량을 조사하고, 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가로이용현황 및 가로에 대한 인식, 가로변 점포영업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고매로 일대는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생활쓰레기문제, 주차문제, 내외국인간 교류와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가장 먼저 대두된 문제도, 분리수거 및 재활용 등에 대한 행정과 시민단체의 계몽·계도활동을 통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내외국인간 교류와 소통증진을 위해 ‘우분트 in 수원’과 같은 행사가 행해졌으나 이는 일시적 행사로,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교류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주차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에 의한 소통 및 안전문제와 상점의 영업행위에 따른 고객주차수요의 문제로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등의 설치가 유일한 대안으로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매로 가로환경을 보면, 외국어로 간판이 설치된 점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 및 유희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업종들은 대부분 내국인보다는 외국인(특히, 중국인)관련 점포들로, 점차 외국인 식당을 중심으로 외국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는 최근 개업한 경우는 없고, 대부분 장기간 영업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료 증가 등이 없어 신규계약의 외국인(중국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며, 월세를 미루기도 한다.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월세를 미루지 않고, 신규계약을 통해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외국인 신규세입자를 더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매로 이용자들 고매로는 북측은 출퇴근 동선을 포함 생활동선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남측 매산로 방향은 시외 방문이용객들의 주 접근동선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내국인들은 해당 가로의 점포 등을 이용하기 보다는 단순 통과,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점포이용은 주로 점심 및 저녁시간대에 높아진다. 가로변 점포들은 주로 외국인(중국인)들에 의해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면에서 내국인의 경우 무질서, 위생 등 환경이 불량한 점, 주차시설의 부족 등이 주된 불만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중국인)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넓고 큰 간판 등 가로경관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이국적 풍경으로 지역성을 나타내고 외국인(중국인)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주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는 불법주차에 대한 대응하고, 가로점포의 고객주차를 수용하기 위해, 공영주차시설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도로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외국인(중국인)들의 특성에 비추어 가로변 벤치 등 휴식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상인들 특히, 외국인영업자들은 현재는 상인조직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인들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인간 교류, 친목활동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해당 고매로 일대를 정비함에 있어 물리적으로는 가로환경을 외국풍으로 강화하고, 보행의 쾌적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간 생활·문화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인간 교류 및 친목도 모를 바탕으로 조직적 활동전개 등 관계향성 지원을 위한 비 물리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요구된다.

제2절 정책적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도시관리 측면에서 고매로 일대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
과 지속적인 외국인 점포 조사·분석을 제언한다.

1. 고매로 일대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

① 다문화 특화가로 조성의 필요성과 효과

고매로 일대는 현재 많은 외국(주로 중국)점포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외국인들에게는 선호되고 있으나 내국인들에게 다소 경관적, 생활안전적 측면에서 부정적 이미지도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외국점포들의 밀집환경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다문화 특화가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로조성은 수원시에 수원화성 등 정조이래의 전통문화가로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가로를 형성, 수원관광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 포용적 국제도시로서의 긍정적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고매로 다문화 특화가로 기본 정비방향

- 외식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가로
-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정비
- 공영 주차빌딩 정비
- 가로상인(내국인, 외국인 포함) 주체의 지역관리 조직 형성유도 및 활동 지원
 - : 지역개선 계획수립 및 지역규약 수립 과정을 통해 조직화
- 내·외국인 교류거점 조성
 - : 지역 내 외식점포 등 소개
 - : 일반 수원시민들이 외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 유치
 - : 내·외국인 주민, 상인 일상생활 속 문화교류가 가능하고 인기가 높은 공영유치원등 생활이용시설 유치, 조성.
- 다문화 교류행사 추진
 - : 외국공관 등과 연계한 문화프로그램 집중유치, 정례화
- 외국인의 공식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 외국인 종업원 고용을 통한 외국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미지 및 인식을 개선함으로

써 외국인범죄 개연성 감소.

2. 외국인 점포 조사·분석 정례화

수원시에는 수원역일대를 중심으로 장안문일대, 그리고 화서시장 등으로 외국인 점포(상권)등이 형성, 확장되어가고 있다.

수원시 전체에 있어서 외국인 점포(상권)의 증가정도 및 공간적 확산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외국인 점포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축적과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수원시내 대학의 도시계획관련 과의 수업활동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며, 적절한 관리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이를 공론화해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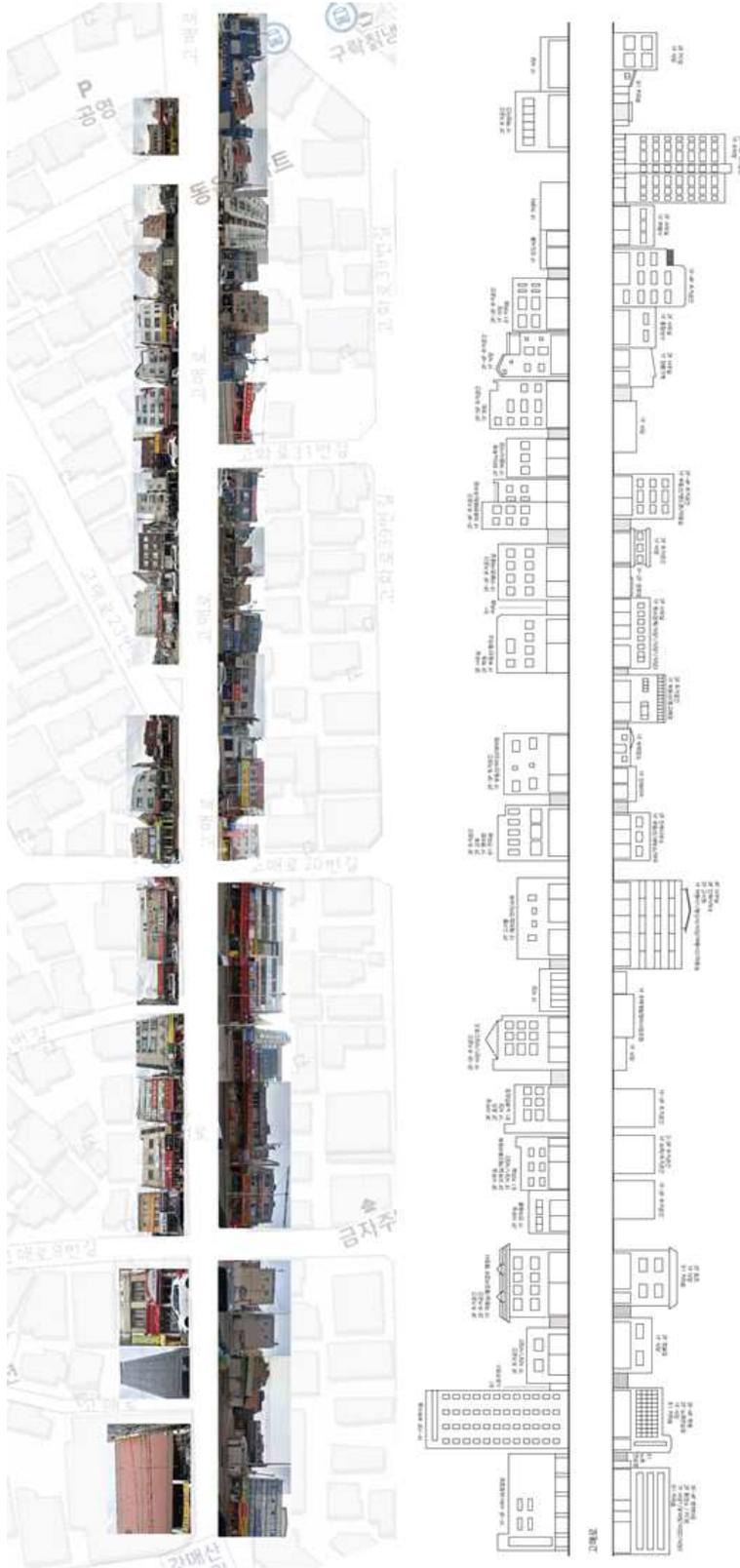
- 강혜원 외(1명)(2013), 김해시 외국인노동자 이용밀집 가로의 이용행태 연구, 대한건축학회, 29권 7호, pp.189-197
- 권은(2011), 다문화공간의 형성과 갈등의 전개 방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2010), 한국사회의 공간 민주주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민(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입지특성과 주민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2014),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려정(2017), 중국동포 밀집지역 가리봉동의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세훈 외(3인)(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정, 국토연구원.
- 박세훈 외(1명)(2010),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구로구 가리봉동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다문화사회연구, 3권 2호, pp.71-101
- 박신영 외(2명),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에 의한 근린효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7권 5호, pp.217-230
- 박이수(2017), 조선족 밀집지에 대한 내.외부 인식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성훈 외(1명)(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연구: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19권 2호, pp.39-58
- 서지수(2011),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도영(2011), 도시 다문화 구역의 형성과 소통의 전개방식, 한국사회역사학회, 14권 4호, pp.5-39
- 유문중 외(2012) 수원시 고등동지, 수원박물관
- 이석준 외(1명)(2014),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 간 특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15권 4호, pp.1-16
- 이석준(2014), 조선족 밀집지의 형성과 성장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리봉동과 대림2동, 자양4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호(2008) “차이나타운의 재개발과 의미의 경합”. 한국문화인류학. 41권 2호, pp.209-248.

- 전병규(2011), 다문화특구지역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장소인식차 실증분석: 안산시 원곡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재은(2017), 중국인 밀집지 자양4동 건축물의 용도 및 업종 변화에 따른 가로 경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철욱 외(1명)(2013), 김해 이주노동자들의 공간 의미화와 '외국인 거리'의 형성, 한국민족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47호, pp.361-396
- 최세나(2015), 다문화상권화에 따른 가로경관변화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연 외(1명)(2013),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장소이미지 및 만족도의 내·외국인간 차이관한 연구: 이태원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대한국토·토지계획학회, 48권 7호, pp.37-54
- 한대광(2007), 인천 차이나타운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우(2008), 안산시 원곡동 이주민의 영역화 과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보영(2015), 서울시 다문화 외식산업 다양화 지역에 대한 공간적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Yeoh, Brenda S.A.(1996) Contesting Space: Power Relations and Urban Built environment in Colonial Singapo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홈페이지>

- 안산시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cityansan/221099338179>
- 뜨개룸(KNITTING ROOM) 개인 블로그 <https://blog.naver.com/artrary/220827844565>
- Naturis 개인 블로그 <http://naturis.kr/1363>
- 한국의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227177>
- SBS 뉴스 홈페이지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594370
- Tick Talk 개인블로그 - <http://hyunyrn.tistory.com/282>
- 아띠아모 카페 <http://cafe.naver.com/kyungmammo/2132788>
- 다음백과, 2018.7 다문화정책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4d1564n12>

| 부 록 | 고매로 가로변 건축물 현황



| 부 록 | 설문지(보행이용자)

수원시 고매로 일대 다문화점포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	
-1	수원시 고매로에 대한 시민 인식 설문조사
ID: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border: 1px dashed red;" type="text"/>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border: 1px dashed red;" type="text"/> <input style="width: 40px; height: 20px; border: 1px dashed red;" type="text"/>	
<p>인정하십니까?</p> <p>본 설문조사는 수원시 고매로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 있고 쾌적한 가로 조성과 정비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오니 성의 있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4월</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수행자 : 수원시경연구원 김준석 조사수행기관 : 수원시경연구원 문 외 : 이다미 031-220-8040 / dm702@suwon.re.kr</p>	
<p>「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p> <p>제33조 (비밀의 보호)</p> <p>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p> <p>③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p>	
<p>■ 작성 요령</p> <p>1.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응답의 보기번호 앞 <input type="checkbox"/> 안에 V를 체크해 주십시오.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V</p> <p>2. 또는,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써넣어 주십시오. 예) 0 기타 <u>상업점포 우대</u></p>	
<p>수원시 고매로 일대 다문화점포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0 1</p>	

I. 귀하의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한국 | <input type="checkbox"/> 2) 중국 |
| <input type="checkbox"/> 3) 베트남 | <input type="checkbox"/> 4) 필리핀 |
| <input type="checkbox"/> 5) 태국(TH) | <input type="checkbox"/> 6) 기타 _____ |

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남성 | <input type="checkbox"/> 2) 여성 |
|--------------------------------|--------------------------------|

문3. 귀하의 나이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1) 20세 미만 | <input type="checkbox"/> 2) 20~29세 | <input type="checkbox"/> 3) 30~39세 |
| <input type="checkbox"/> 4) 40~49세 | <input type="checkbox"/> 5) 50~59세 | <input type="checkbox"/> 6) 60세 이상 |

문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생산관련직 | <input type="checkbox"/> 2) 사무직 |
| <input type="checkbox"/> 3) 상업(자영업) | <input type="checkbox"/> 4) 전문직 |
| <input type="checkbox"/> 5) 공무원 | <input type="checkbox"/> 6) 서비스업 |
| <input type="checkbox"/> 7) 학생 | <input type="checkbox"/> 8) 기타 _____ |

문5.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수원시 | <input type="checkbox"/> 2) 화성시 |
| <input type="checkbox"/> 3) 안산시 | <input type="checkbox"/> 4) 의왕시 |
| <input type="checkbox"/> 5) 구리시 | <input type="checkbox"/> 6) 평택시 |
| <input type="checkbox"/> 7) 그 외 지역 _____ | |

II. 귀하의 고매로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6. 귀하께서 고매로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1) 단순 통과
- 2) 음식점 및 카페 이용
- 3) 유증사설(주점, 노래방, PC방) 이용
- 4) 외국 점포가 많아서
- 5) 필요한 물품 구입
- 6) 출·퇴근
- 7) 정보를 얻기 위하여
- 8) 기타 _____

문7. 귀하께서는 고매로에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 1) 매일 방문
- 2) 1주일 2회 이상
- 3) 1주일 1회
- 4) 한 달에 1회 이상
- 5) 처음 방문

문8. 귀하가 고매로에 오실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1) 도보
- 2) 자전거
- 3)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 4) 승용차
- 5) 택시
- 6) 기타 _____

III. 고매로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9. 현재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문9-1로)
- 2) 만족한다 (문9-1로)
- 3) 불만족하다 (문9-2로)
- 4) 매우 불만족하다 (문9-2로)

문9-1. 고매로의 어떠한 점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1) 이국적인 분위기
- 2) 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함
- 3) 접근성이 좋음
- 4) 기타 _____

문9-2. 고매로의 어떠한 점이 불만족스러우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1) 건물의 노후화 및 간판정비 불량
- 2) 상인들의 물친절
- 3) 휴식공간의 부재
- 4) 주차시설 부족
- 5) 무질서, 위생 등 주변환경 불량
- 6) 어둡고 위험할 것 같은 분위기
- 7) 외국인과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 8) 기타 _____

수원시 교통로 활성화 연구를 위한 2018 설문조사

문10. 교매로의 이미지를 각 항목별로 표기해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특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평온하다	①	②	③	④	⑤
익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친근하다	①	②	③	④	⑤
여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조화롭다	①	②	③	④	⑤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어색하다	①	②	③	④	⑤
복잡하다	①	②	③	④	⑤
화려하다	①	②	③	④	⑤
낯설다	①	②	③	④	⑤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물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지저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시끄럽다	①	②	③	④	⑤
어둡다	①	②	③	④	⑤
위험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1. 교매로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 | |
|---|---|
| <input type="checkbox"/> 1) 다양한 점포 마련 | <input type="checkbox"/> 2) 주차시설 확대 |
| <input type="checkbox"/> 3) 벤치 등 휴식공간 마련 | <input type="checkbox"/> 4) 건축물 및 간판 정비 |
| <input type="checkbox"/> 5) 안내표시 등 가로시설물 설치 | <input type="checkbox"/> 6) 홍보활동(방송/신문 등) |
| <input type="checkbox"/> 7) 보행로 개선 | <input type="checkbox"/> 8) 기타 _____ |

문12. 기타 교매로 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부 록 | 설문지(영업자)

수원시 고매로 개안형안 언두를 위한 2018 설문조사	
-	수원시 고매로에 대한 시민 인식 설문조사
I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안녕 하십니까?</p> <p>본 설문조사는 수원시 고매로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 외로 유출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설문 참여는 기조자료로서 활용되오니 성의 있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4월</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수행자 : 수원시경연구원 김주석 조사수행기관 : 수원시경연구원 문의 : 이다미 031-220-8040 / dm702@suwon.re.kr</p>	
<p>「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p> <p>제33조 (비밀의 보호)</p> <p>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p> <p>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p>	
<p>■ 작성 요령</p> <p>1.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응답의 보기번호 앞 <input type="checkbox"/> 안에 V를 체크해 주십시오.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V</p> <p>2. 또는,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써넣어 주십시오. 예) () 기타 <u>상업점포 임대</u></p>	
<p>수원시 고매로 일대 다문화집포 현황조사 및 대응방안</p> <p style="text-align: right;">0 1</p>	

I. 귀하의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한국 | <input type="checkbox"/> 2) 중국 |
| <input type="checkbox"/> 3) 베트남 | <input type="checkbox"/> 4) 필리핀 |
| <input type="checkbox"/> 5) 태국(TH) | <input type="checkbox"/> 6) 기타 _____ |

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남성 | <input type="checkbox"/> 2) 여성 |
|--------------------------------|--------------------------------|

문3. 귀하의 나이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1) 20세 미만 | <input type="checkbox"/> 2) 20~29세 | <input type="checkbox"/> 3) 30~39세 |
| <input type="checkbox"/> 4) 40~49세 | <input type="checkbox"/> 5) 50~59세 | <input type="checkbox"/> 6) 60세 이상 |

문4. 귀하가 운영하시는 사업장(점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식당 및 카페 | <input type="checkbox"/> 2)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
| <input type="checkbox"/> 3) 전자(이동통신) | <input type="checkbox"/> 4) 식료품 |
| <input type="checkbox"/> 5) 생활용품 | <input type="checkbox"/> 6) 전자(이동통신) |
| <input type="checkbox"/> 7) 공인중개사사무소 | <input type="checkbox"/> 8) 이·마용 |
| <input type="checkbox"/> 9) 교육 | <input type="checkbox"/> 6) 기타 _____ |

문5. 귀하가 운영하시는 사업장(점포)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임대 | <input type="checkbox"/> 2) 소유 |
|--------------------------------|--------------------------------|

문6. 귀하의 사업장(점포)에 외국인 증업일이 있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있다. | <input type="checkbox"/> 2) 없다. |
|---------------------------------|---------------------------------|

문7.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수원시 | <input type="checkbox"/> 2) 화성시 |
| <input type="checkbox"/> 3) 안산시 | <input type="checkbox"/> 4) 의왕시 |
| <input type="checkbox"/> 5) 구리시 | <input type="checkbox"/> 6) 평택시 |
| <input type="checkbox"/> 7) 그 외 지역 _____ | |

II. 귀하 사업장의 전반적 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8. 귀하는 고매로에서 영업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1) 10년 이상
- 2) 5년~10년
- 3) 3년~5년
- 4) 1년~3년
- 5) 1년 미만

문9. 귀하 사업장(점포)의 영업상황(매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좋다
- 2) 비교적 좋은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비교적 안 좋은 편이다.
- 5) 매우 안 좋다.

문10. 귀하 사업장(점포)을 방문하시는 손님은 한국인과 외국인 중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 1) 한국인
- 2) 외국인

문11. 귀하는 지역상인 조직에 등록이 되어 있고, 활동하고 계십니까?

- 1) 등록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다.
- 2) 등록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 3) 비등록

문12. 귀하는 상인 조직 활동에 있어서 회의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 3) 잘 모르겠다.

III. 고매로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3. 현재 고매로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문13-1로)
- 2) 만족한다. (문13-1로)
- 3) 불만족하다 (문13-2로)
- 4) 매우 불만족하다. (문13-2로)

문13-1. 고매로의 어떠한 점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1) 이국적인 분위기가 좋다.
- 2) 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하다.
- 3) 접근성이 좋다.
- 4) 기타 _____

수원시 교역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2018 설문조사

문13-2. 현재 교역로의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1) 건물의 노후화 및 간판정비 불량
- 2) 한국인의 감소
- 3) 휴식공간의 부재
- 4) 주차시설 부족
- 5) 무질서, 위생 등 주변환경 불량
- 6) 어둡고, 위험할 것 같은 분위기
- 7) 외국인과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 8) 기타 _____

문14. 교역로의 이미지를 각 항목별로 표기에 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특이하다	①	②	③	④	⑤
평온하다	①	②	③	④	⑤
익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친근하다	①	②	③	④	⑤
여유롭다	①	②	③	④	⑤
조화롭다	①	②	③	④	⑤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어쩍하다	①	②	③	④	⑤
복잡하다	①	②	③	④	⑤
화려하다	①	②	③	④	⑤
낯설다	①	②	③	④	⑤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물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지저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시끄럽다	①	②	③	④	⑤
어둡다	①	②	③	④	⑤
위험하다	①	②	③	④	⑤

IV. 고매로의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5. 고매로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1) 다양한 점포 마련
- 2) 주차시설 확대
- 3) 벤치 등 휴식공간 마련
- 4) 건축물 및 간판 정비
- 5) 안내표시 등 가로시설물 설치
- 6) 상인들의 단합
- 7) 홍보활동(방송/신문 등)
- 8) 보행로 개선
- 9) 기타 _____

문16. 고매로의 발전을 위해 상인들이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 외국인 고객에게 친절
- 2) 내국인 고객 증진을 위한 노력
- 3) 상인 간 친목과 단합
- 4) 기타 _____

문17. 기타 고매로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저자 약력 |

김주석

공학박사(사회공간시스템학)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현)

경기도 지속가능협의회 마을의제 실행위원

수원시속가능협의회 연구위원회 위원

E-mail : tinkneti@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동단위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2017, 수원시정연구원)

「지역단위 주민계획·조직의 통합적 운용을 통한 도시재생제도 연구」(2017,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수원시 공동주택 지원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2017, 수원시정연구원)

